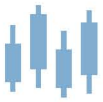
WP 21-12

코로나19 유행 1년간의 서울시 지역경제 변화와 시사점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jhlee@krihs.re.kr)



KRIHS 국토연구원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상권분석팀의 자료 협조를 통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차례

01 서 론 05

02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09

03 서울시 상권변화 분석 19

04 정책제언 43

01 서론

■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규모 인적·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피해는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말까지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는 약 18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0.023%에 해당함(2020년 12월 31일 기준, WHO COVID-19 dashboard[1])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223개국에서 약 8,241만 명(전 세계 인구의 1.07%)의 확진자를 야기함(2020년 12월 31일 기준, WHO COVID-19 dashboard)
  - 국내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됐고, 그 이후 세 차례의 유행을 거쳐 2020년 12월 31일 기준 6만 1,769명의 확진자, 917명의 사망자를 기록함(질병관리청 2021)
-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강력한 봉쇄정책과 방역정책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경제활동 네트워크가 미(未)구축된 경우 급속한 경제 침체로 이어짐
  - 2020년 3월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이 진행된 기간으로, 이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이동 제한 및 영업 중단과 같은 봉쇄조치를 진행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짐
  - 사태 초기 코로나19가 전 세계 대유행으로 확대될 경우 2020년 GDP의 최소 2.4%를 상실할 것이며,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에서 2.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2]
  -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으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함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전염병 구분 단계 중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대유행)을 선언하였으며(이진희 2020; 이진희 외 2020, 4에서 재인용),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팬데믹은 종식되지 않음

1) https://covid19.who.int/ (2021년 2월 18일 검색).
2) https://www.statista.com/topics/6139/covid-19-impact-on-the-global-economy/ (2021년 2월 18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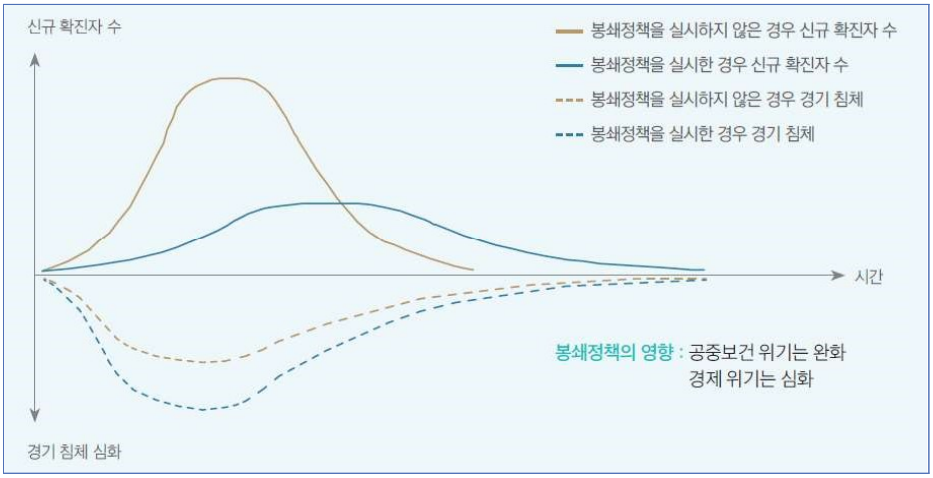
- 2020년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 경제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아 국가의 경우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봉쇄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함[3)]

■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지역 경제 쇠퇴가 확인되었으며, 지역의 대응 능력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발생함**

- 정부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하였고, 3차 유행 이후 격상된 거리두기 방침은 2021년 초까지 완화되지 않고 있음
  - 1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서는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간 외출 자제와 모임 등 행사 자제, 재택근무 등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20년 6월 2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실행방안이 마련되면서 확진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됨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2020년 상반기에 뚜렷한 경제성 약화로 나타났으며, 정부 방침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한 반면, 역량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쇠퇴가 가속화됨
  - 이성호·최석환(2020)은 수원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월별 매출액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1차 유행 기간 동안 수원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이 이전 연도 대비 약 18% 감소하였으나 4월 이후에는 전반적인 소비활동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함
  - 코로나19 1차 유행 이후에는 강력한 봉쇄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할 경우 소매판매 감소의 영향이 작은 반면(우영진 2020), 대면활동이 필수적인 여행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김대중·최요한 2020; 임태경 2020; 문새하 2020)
  - 또한 상권 특성에 따라 대면접촉업종과 교통중심지 상권, 관광상권이나 대학상권일수록 더 큰 매출감소를 경험한 반면, 근린상권이나 생활 관련 업종 등의 매출 감소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파악됨(이성호·최석환 2020; 서울특별시 2021)

3) The Wall Street Journal. 2021. Slow-Vaccinating Asia Is Squandering Its Economic Advantages. March 24, https://www.wsj.com/articles/slow-vaccinating-asia-is-squandering-its-economic-advantages-11616570494 (2021년 3월 28일 검색).

그림 1 봉쇄정책과 경기 침체의 관계



출처: 우영진 2020, 3의 〈그림 4〉에서 재인용 (원자료는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된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 변화와 지역 상권에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첫 번째 확진자 확인 이후 지난 1년간 약 세 차례의 유행 발생과 정부의 행정적 방역 조치가 추진됨에 따라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미진함
  - 코로나19 발생이 2020년도 상반기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나, 그 이후 변화에 대한 진단은 미흡하며, 특히 지역과 상권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의 대응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함
  - 특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응이 큰 폭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정도나 정부의 방역정책이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이 향후 방역정책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이 페이퍼에서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정부정책에 따라 실제 상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정부의 방역정책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이 페이퍼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인명 피해 현황과 방역정책 변화가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02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1) 국내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른 방역 조치

- 국내에서는 지난 1년간 2020년 2월 신천지발 대구·경북 중심 1차 유행, 8월 서울 8.15 도심 집회 중심 2차 유행, 11월 수도권 중심 3차 유행 총 세 차례의 유행이 발생함
  - 1차 유행 기간인 2020년 2월 19일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월 26일 누적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3월 중순까지 매일 100~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3월 14일 누적 확진자 수가 8천 명을 넘어섬
  - 4월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의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부터 점차 확진자 수가 증가, 8.15 도심 집회를 기점으로 다시 일일 100명 이상이 확진되는 2차 유행이 발생함
  - 2차 유행은 9월 중순까지 계속되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3차 유행이 발생, 12월 중순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서기 시작함
- 3차 유행 이후 확진 현황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2021년 들어서도 매일 4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사망자 수의 경우 1·2차 유행 기간에는 큰 변동은 없었으나, 3차 유행에 들어 매일 10명 이상의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12월 29일에는 최다 사망자인 40명을 기록함
  - 2020년 11월 말 누적 사망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누적 사망자 수가 1천 명에 달하기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아 치사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31일 기준 누적 사망자 수는 1,731명을 기록함
- 특정 시점에서 인구집단의 평균 감염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time-varying reproduction number: Rt)를 측정한 결과, 1차 유행기간 동안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도입 이후 점차 완화됨
  - 2차와 3차 유행기간 동안에는 이전 주차와 비교하면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소 상승했으나, 1차 유행 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임

- 신천지발 1차 유행에 따라 정부는 2020년 3월 23일부터 4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 후, 확진자 및 재생산지수 감소로 4월 20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조정 이후,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
  - 첫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20. 3. 23 ~ 4. 5)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아닌, 개인의 외출 및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의 연기나 취소, 외출 자체, 위생수칙 준수,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시행, 출장 연기나 취소, 영상회의 권고 등을 강조함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개인 방역을 강조할 뿐, 개별 시설에 대한 지침은 간격 조정이나 포장 이용 등에 대한 권고에 그침
- 6월 28일부터 도입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됨
  -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는 운영이 중단되며, 그 외 시설의 경우에도 3단계부터는 밤 9시 이후로 영업이 금지됨

표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방역 지침

구 분		단계1	단계2	단계3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1]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방역 지침	모임 및 행사	• 가능 • 방역 수칙 준수	• 일정 규모 이상 공적·사적 모임 금지 • 스포츠 경기 무관중	• 10인 이상 금지 •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 장례식 가족만 참석
	다중이용시설	• 시설 이용 허용 • 방역 수칙 준수	• 공공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2] 운영 중단 • 방역 수칙 준수	• 공공시설 운영 중단 (필수시설 등 예외)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학교	• 방역 수칙 준수 • 원격수업 병행	• 원격수업 병행 • 밀집도 최소화	• 전면 원격수업 • 휴고·휴원
	기관 및 기업	• 공공기관 1/3 재택 • 민간기관 일부 재택 권고	• 공공기관 1/2 재택 • 민간기관 일부 재택 권고	• 공공기관 재택 우선 • 민간기관 최대한 재택 권고

주: 1)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2) 고위험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출처: 보건복지부 2020. 6. 28; 이진희 외 2020, 35-36의 〈표2-6〉, 〈표2-7〉를 토대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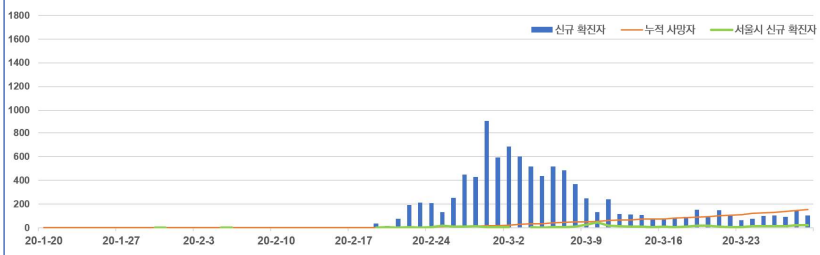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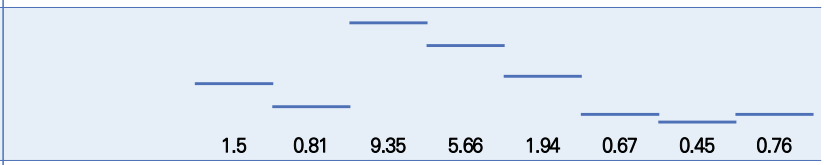
- 2차 대유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전파 위험성에 따라 차등적인 방역을 목표로 2020년 11월 1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도입함
  - 5단계 기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와 일반관리시설로 구분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단계별 운영 제한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과 방문·직접 판매시설과 홍보관,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은 2단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 및 카페 역시 2단계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결혼식장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규모 점포 등 역시 2.5단계 이후 일부 집합 금지가 적용됨

표 2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및 방역 지침

<table>
<tr><th colspan="2" rowspan="3">구 분</th><th>1단계</th><th>1.5단계</th><th>2단계</th><th>2.5단계</th><th>3단계</th></tr>
<tr><th>생활방역</th><th colspan="2">지역 유행 단계</th><th colspan="2">전국 유행 단계</th></tr>
<tr><th>생활 속 거리두기</th><th>지역유행 개시</th><th>지역유행 전파, 전국유행 개시</th><th>전국유행 본격화</th><th>전국적 대유행</th></tr>
<tr><td colspan="2">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td><td>• (수도권) 100명 미만
• (타 권역) 30명 미만
• (강원·제주) 10명 미만</td><td>• (수도권) 100명 이상
• (타 권역) 30명 이상
• (강원·제주) 10명 이상</td><td>•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 1개 충족 시 격상</td><td>• 전국 400~500명 이상</td><td>• 전국 800~1천 명 이상</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2">•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td></tr>
<tr><td rowspan="5">중점관리시설 방역조치</td><td>유흥시설 5종</td><td>• 인원 제한</td><td>• 인원 제한
• 행동 제한</td><td colspan="3">• 집합금지</td></tr>
<tr><td>방문·직접 홍보관</td><td>• 인원 제한
• 취식 금지</td><td>• 인원 제한
• 취식 금지
• 밤 9시 이후 금지</td><td>• 인원 제한 강화
• 취식 금지
• 밤 9시 이후 금지</td><td colspan="2">• 집합금지</td></tr>
<tr><td>노래 연습장</td><td>• 사용 후 소독
• 시간차 사용</td><td>• 인원 제한
• 취식 금지
• 사용 후 소독
• 시간차 사용</td><td>• 인원 제한
• 취식 금지
• 사용 후 소독
• 시간차 사용
• 밤 9시 이후 금지</td><td colspan="2">• 집합금지</td></tr>
<tr><td>실내 스탠딩 공연장</td><td>• 인원 제한</td><td>• 인원 제한
• 취식 금지</td><td>• 좌석 배치
• 좌석 간 거리두기
• 밤 9시 이후 금지</td><td colspan="2">• 집합금지</td></tr>
<tr><td rowspan="2">식당 및 카페</td><td>• 테이블 거리두기
• 테이블 띄우기
• 칸막이 설치</td><td>• 테이블 거리두기
• 테이블 띄우기
• 칸막이 설치 강화</td><td colspan="2">• 테이블 거리두기
• 테이블 띄우기
• 칸막이 설치 강화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td><td>• 인원 제한
• 카페 포장 · 배달만 허용
•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td></tr>
<tr><td colspan="5">• (뷔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td></tr>
</table>

출처: 보건복지부 2020. 11. 1; 이진희 외 2020, 38의 〈표2-9〉를 토대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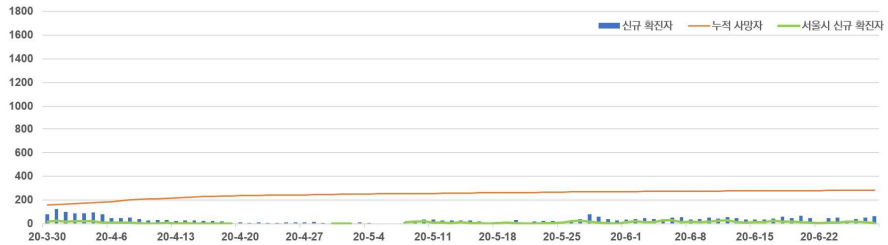
표 3 코로나19 발생 타임라인에 따른 방역 조치 변화

구 분		2020년 1분기
국내 상황	확진자 및 사망자	
	감염 재생산 지수 (Rt)	
	주요 이슈	1/20 첫 확진자 발생 1/30 첫 2차 감염자 발생 1/31 우한 교민 1차 입국 2/6 첫 확진자 퇴원 2/18 신천지발 1차 대유행 2/20 첫 사망자 발생 2/26 누적 확진자 1천 명 대 진입 3/4 대구지역 확진자 4천 명 돌파 3/10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누적 완치가자 확진 격리자 상회(골든크로스) 3/28
국외 상황		19/12/31 중국 후베이성 우한 정체불명 폐렴 환자 집단발생 공식 확인 1/9 중국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1/21 미국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23 유럽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30 WHO '국제보건위기상황' 선포 2/12 WHO "COVID-19" 명명 2/15 아시아 외 지역(프랑스)에서 첫 사망자 발생 2/17 중국 누적 확진자 7만 명 발생 2/25 미국 한국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 3/8 (美) 뉴욕주 비상사태 선포, (伊) 밀라노, 베네치아 봉쇄 3/14 미국, 스페인, 불가리아 국가비상사태 선포
정부 대응		1/23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 격상 1/27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격상 2/2 중국 전용 입국장 설치 2/4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배포 2/7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2/10 한시적 국내 크루즈선 입항 금지 2/11 중국 외 홍콩, 마카오 오염지역 지정 2/20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시작단계 판단 2/21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2/2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 2/24 전국 유·초·중·고 개학 연기, 정부 전화 진료 허용 2/25 공공2부제, 1회 용품 규제 일시 중단 2/26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3법 통과 3/1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3/2 전국 유·초·중·고 개학 2차 연기, 대학 재택수업 3/7 첫 아파트 코호트 격리 (대구) 3/9 공적 마스크 5부제 시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3/15 전국 유·초·중·고 개학 3차 연기 3/17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전체 입국자로 확대 **강력한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3/23

주: 구체적인 일시는 시차, 발표와 시행 일시 격차 등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표 3 코로나19 발생 타임라인에 따른 방역 조치 변화 (계속)

2020년 2분기



0.85	0.67	0.53	0.58	0.59	0.75	4.58	0.84	1.52	1.30	1.11	0.91	0.88

4/3 확진자 1만명 돌파
4/7 서울시 첫 사망자 발생 4/30 지역사회 확진 0명 기록
5/8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5/27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6/4 서울 리치웨이 집단감염
대전 방문판매업체 집단감염 발생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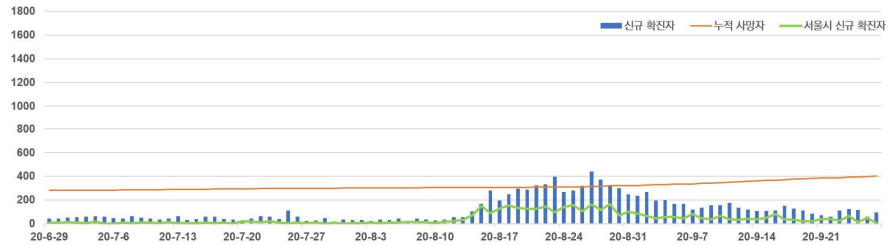
4/3 전세계 확진자 100만명 돌파
4/7 미국 사망자 1만명 돌파 / 일본 도쿄 등 7개 지역 긴급사태 선언
4/9 한국 입국금지 90개국
4/12 미국 확진자 50만 명 돌파
4/20 미국 사망자 4만 명 돌파
5/28 미국 사망자 10만 명 돌파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최고(18만 명) 기록 6/22
전 세계 확진자 천만 명 돌파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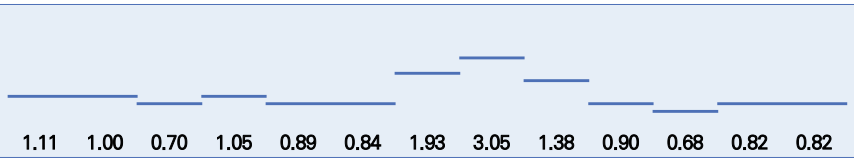
3/30 정부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3/31 전국 유·초·중·고 개학 4차 연기, 고3·중3 온라인 개학
4/1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수능 2주(~12/3) 연기
4/4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5/18 경기도 기본소득 지급 근거 조례 제정
4/8 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 5/20 초·중·고 1차 등교수업
4/20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4/21 제한적 시설 개발
4/22 193개 대학 대면 수업 시작
4/23 정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5/3 공공시설 순차 재개
5/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5/6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5/5),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5/9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5/10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5/11 지자체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확산
5/23 경기도 코인노래방, 단란주점 집합금지 명령
5/24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수도권 유·초·중 등교 1/3 이하 제한, 음압병실 83개(17개 기관) 선정 5/29
6/1 마스크 5부제 폐지
6/8 초·중·고 4차 등교수업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 6/15
식약처 음식점 방역 발표 6/2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실행방안 마련 6/28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ncov.mohw.go.kr/tcmBoardList.do?brdId=3 2021년 4월 2일 검색); 서울시 코로나19

표 3 코로나19 발생 타임라인에 따른 방역 조치 변화 (계속)

2020년 3분기





7/10 전국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 누적 453명
해외유입(86명) 최다 기록 7/25
홍천 캠핑장 집단감염 7/31
고양 교회 → 남대문시장 감염 확산 8/10
8.15 도심 집회발 2차 대유행 8/16
8/17 광주 유흥시설, 파주 스타벅스 집단감염
8/20 성북구 체대입시학원, 원주 체조교실 집단감염
8/28 부산 목욕탕 집단감염
9/1 확진자 2만 명 돌파
9/5 대구 사업설명회 집단감염
기아차 광명 공장 집단감염 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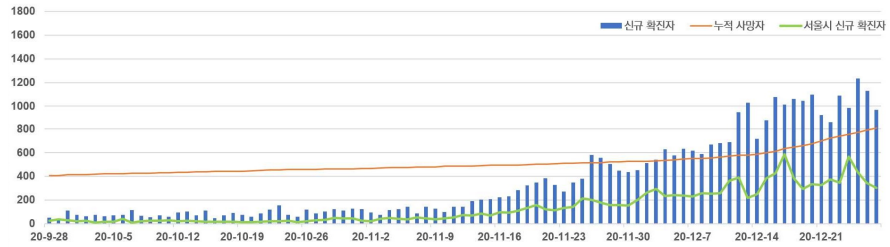
7/1 EU 한국인 입국 허용
7/7 미국 100명 중 1명 감염
7/13 코로나19 재확산에 봉쇄 지방정부 증가
7/22 전 세계 확진자 15백만 명 돌파
8/10 확진자 미국 5백만 명, 전 세계 2천만 명 돌파
8/20 유럽 2차 확산
전 세계 일일 100만 명 확진 발생 9/14
미국 사망자 20만 명 돌파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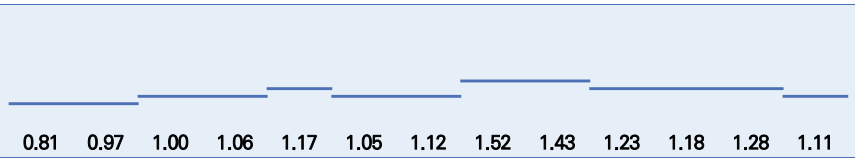
7/1 **광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7/6 **전남 거리두기 2단계 격상**
7/9 대전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2주 연장
7/12 공적 마스크 판매 종료
7/15 혼잡 해수욕장 입장제한
7/19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제한적 개방
7/24 교회 소모임 7/10 집합제한 이후 재개
7/31 수도권 · 광주 2/3 등교 결정
8/6 음식점과 별도 분리하여 '카페 방역지침' 시행
8/12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부과
8/1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조건부 집합제한 명령
8/16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8/17 **부산 거리두기 2단계 시행**, IT 재택근무 전환
8/18 경기도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8/19 비수도권 2학기 전면등교 백지화
8/23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해수욕장 긴급폐장
8/24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8/27 카페 방역지침 시행
9/12 질병관리청 출범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격상,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8/30
수도권 집합금지 제한 사업장 휴업수단 최대 90%까지 지원 발표 8/31
편의점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9/1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연장 9/4
한강공원 출입 통제 9/8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영업제한 해제 9/14

대응일지(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07 2020년 4월 8일 검색); 경향신문 코로나19

표 3 코로나19 발생 타임라인에 따른 방역 조치 변화 (계속)

2020년 4분기





0.81	0.97	1.00	1.06	1.17	1.05	1.12	1.52	1.43	1.23	1.18	1.28	1.11

10/24 부천 발레학원 집단감염
11/5 천안 콜센터 집단감염
12/3 강남 어학원 집단감염
12/7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11/20 노량진 임용학원 집단감염
11/24 인천 송도 룸싸롱 집단감염
일일 사망자 최다(22명) 발생 12/17
일일 신규 확진 최다(1,241명) 발생,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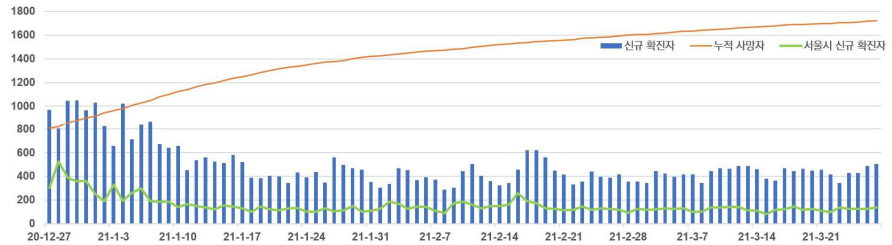
10/24 미국 일일 8만명 확진 발생
11/19 미국 사망자 25만 명 돌파, 뉴욕 공립학교 폐쇄
12/2 영국 화이자 백신 승인
12/4 사망자 150만 명 돌파
12/8 영국 백신 접종 시작
캐나다 화이자 승인 12/10
미국 화이자 승인 12/12
미국 백신 접종 시작, 독일 크리스마스 봉쇄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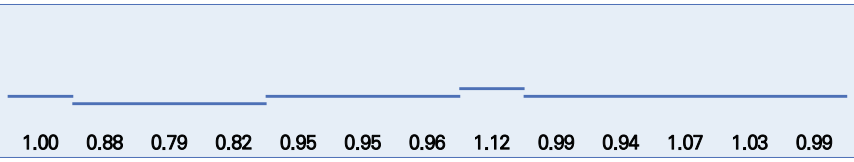
9/28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정**
10/12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조정**
11/13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부과
11/19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24 **서울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심야버스 단축 운영
11/29 서울시 지하철 단축 운영
12/1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12/3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규매
계약 완료
12/5 2주간 9시 이후 중점관리
시설과 상점, 영화관, pc방
등 전면 운영중단
중 · 고 전면 원격수업 12/7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학원, 교습소 운영 중단 12/8
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정부 3,300만 명 분 백신 확보
서울 유 · 초 전면 원격수업 전환 12/13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12/14
연말연시 특별방역 방화대책 시행,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2/23
영국 항공편 일시 중단
화이자 · 안센 백신 계약 12/24

현황(http://news.khan.co.kr/kh_issuenseries/theme_timeline.html?t_code=A103&artSort=old, 2021년 4월 2일 검색);

표 3 코로나19 발생 타임라인에 따른 방역 조치 변화 (계속)

2021년 1분기





1.00	0.88	0.79	0.82	0.95	0.95	0.96	1.12	0.99	0.94	1.07	1.03	0.99

12/29 이천 물류센터 집단감염
12/30 미국 변이 바이러스 첫 확인
1/4 누적 사망자 천명 초과, 상주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1/24 대전 비인가 국제학교 집단감염
1/27 김제 육가공공장 집단감염
2/3 영국 변이 지역사회 전파 확인
3/2 동두천 외국인 집단감염
3/12 진주 사우나 집단감염

1/1 WHO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인증
1/3 영국 변이 바이러스 33개국 전파 확인
1/5 영국 아일랜드 전역 3차 봉쇄, 이스라엘 3차 봉쇄
1/7 일본 수도권 대상 긴급사태 선포
2/16 WHO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
2/17 일본 화이자 접종 시작
2/23 미국 사망자 50만명 돌파
미 FDZ 존슨앤존슨 백신 긴급사용 승인 2/28

12/29 백신 접종 시작, 영국발 항공편 운영 중단 연장
12/31 모더나 백신 계약
1/2 **수도권 2.5단계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1/3 스키장, 학원 인원 제한 운영
1/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비수도권 2단계 시행,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1/8 모든 외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실내체육시설 아동, 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1/14 서울시 요양시설, 보육시설 등 고위험집단 선제검사
1/16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운영 재개
1/19 서울시 66개 문화시설 운영 재개
1/31 설연휴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금지
2/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설치
2/6 **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
2/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시행
2/10 설 특별 교통대책 시행
2/15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유흥시설 운영재개, **수도권 식당 10시로 영업제한 완화**
2/16 노바백스 백신 계약
2/26 서울 요양병원 등서 AZ 백신접종 시작, 현행 거리두기 유지
2/27 화이자 백신접종 시작

유명수 외 2021; WHO COVID-19 dashboard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른 방역 조치

- 서울시는 확진 현황에 따라 정부의 방역 조치 외에 개별 시설의 선별적 운영 제한 및 집합 금지나 특정 지역의 출입 통제, 활동 금지 등의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함
-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15 도심 집회 발 2차 유행 이전까지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자체 방역 수준 역시 낮았음
  - 1차 유행 기간에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는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를 시행함
- 2차 유행에 따라 정부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과 함께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도심 집회 개최지 주변에 대한 특별 방역이 진행됨
  - 서울시 내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률은 8월 중순에 100명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8월 말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9월에는 일일 발생 50명 이하로 완화됨
- 8월 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었으나, 9월에 들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2단계로 조정되었고, 10월 중순부터는 1단계가 적용됨
  - 강화된 2단계 적용 시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의 경우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학원 역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됨
  - 9월 중순 2단계 완화 시에는 일부 카페에 대한 운영 제한과 함께 PC방 내 취식 금지, 공원 폐쇄 등이 이루어짐
- 2020년 10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서울시 역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됨
  - 하지만 10월 말 핼러윈 데이에 따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이 예측되면서 유흥시설이 밀집한 이태원, 홍대, 건대입구, 강남역, 교대역, 신촌역 일대에 특별 방역 조치가 이루어짐
- 가을철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개편된 5단계 거리두기 기준으로 1.5단계가 적용되었으나, 강제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시설 내 활동 제한이나 외부활동 제한 등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방역이 이루어짐
- 11월 말 서울시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식당 및 카페 운영 제한 등이 이루어졌고, 12월에는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300명 이상 발생하면서 2.5단계가 적용되어 집합금지 시설이 확대됨
  - 특히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이 감축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발생함

표 4 **서울시 방역 조치 변화** (2020년 기준)

시기	현황[1)]	단계	주요 방역 지침
03-02	5명		• 잠시 멈춤 캠페인 진행: 타인과 만남 자제, 온라인 소통,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방법 참여 독려
03-23	15명		• **(정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04-08	7명		• 영업 중인 422개 유흥업소(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에 대해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04-20	0명		• **(정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05-06	7명		•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05-22	8명		•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7/10)
08-16	56명	2단계	• 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 사회복지시설 휴관,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
08-18	130명		• 대규모 집회 인근 특별 방역 소독 완료(광화문 광장, 6호선 돌곶이역, 석계역)
08-24	132명		•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08-27			• 음식점과 카페 방역지침 분리, 카페 방역지침 시행
08-30	132명	강화된 2단계	• 음식점, 제과점, 포장마차 등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09-01	66명		• 편의점 집합 제한 명령: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
09-08	49명		• 한강공원 모임 잠시 멈춤: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 한강공원의 제1·2 피크닉장 시민 출입 통제
09-14	40명	2단계	•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 조정 •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용인원 제한
09-16			• PC방 내 음식물 판매 및 섭취 제한, 물 및 음료 판매 및 섭취 허용
09-26	34명		• 하늘공원 한시적 폐쇄(9/26~11/8)
09-28	23명		• 특별방역 기간(9/28~10/11):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조치 유지
10-12	20명	1단계	• 대다수 고위험시설 집합제한으로 전환 • 공공시설 운영 재개
10-28	36명		• 핼러윈 대비 방역(10/28~10/31): 이태원, 홍대, 건대입구, 강남역, 교대역, 신촌역 유흥시설 관리
11-01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1-19	117명	1.5단계	• 2주간 모임, 약속 취소 또는 연기 권고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11-23	169명		•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음식점 9시 이후, 카페 종일 포장·배달만 허용
11-24	169명	2단계	• 천만 시민 멈춤(11/24~12/31):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방문판매업, 목욕장,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방역
12-05	232명		• 천만 시민 멈춤(12/5~12/18):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모두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 밤 9시 이후 음식점 포장·배달,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 허용 • 대중교통 밤 9시 이후 운행 30% 감축
12-08	282명	2.5단계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일부 추가 집합금지 •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2-23	385명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결혼식과 장례식만 50인 미만으로 허용
12-27			• 패스트푸드점,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주: 1)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일지(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07 2020년 4월 8일 검색).

03 서울시 상권변화 분석

1) 상권변화 분석 개요

- 코로나19 사태 및 방역 조치가 서울시 상권에 미친 영향은 크게 매출과 창·폐업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특히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별 변화를 파악하여 지역별 대응 정도를 비교함
- 상권변화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상권분석팀의 협조를 통하여 서울시가 운영하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4]'에서 구득했으며, 개별 변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매출액은 카드사의 카드 승인금액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보정 비율을 곱하여 100개 생활밀접업종별로 추정되었으며, 공간적 단위는 행정동이고 시간적 단위는 분기임
  - 개·폐업률은 당기 개·폐업 사업체를 전체 점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으로, 전체 점포 수는 폐업 이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내 폐업일자가 있는 점포로 한정함

표 5 개별변수 측정 방법

측정 변수	측정 방법	단위
매출액	• 카드 승인금액[1] ÷ 보정 비율	자치구 · 행정동 / 분기
개·폐업률	• (당기 개 · 폐업 신고 점포 수 ÷ 전체 점포 수)	자치구 · 행정동 / 분기

주: 1) 신한카드 승인금액.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https://golmok.seoul.go.kr/main.do 2020년 4월 1일 검색).

- 2020년 매출 변화는 2019년 동일 분기 대비 변화율로 측정했으며, 창·폐업 변화 역시 2019년 동일 분기 대비 개·폐업률 변화로 산정함
  - 매출 변화 = (2020년 n분기 매출액 – 2019년 n분기 매출액) ÷ 2019년 n분기 매출액
  - 개업률 변화 = (2020년 n분기 개업률 – 2019년 n분기 개업률) ÷ 2019년 n분기 개업률
  - 폐업률 변화 = (2020년 n분기 폐업률 – 2019년 n분기 폐업률) ÷ 2019년 n분기 폐업률
- 2019년 창·폐업 변화 역시 2019년 동일 분기 대비 개·폐업률 변화로 분석함

4)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https://golmok.seoul.go.kr/main.do (2020년 4월 1일 검색).

- 지역별 변화는 각 행정동의 매출 및 창·폐업 변화 자료를 토대로 도면화했으며, 변화율을 구간화하여 감소하거나 100% 이하로 증가한 경우 파란색으로, 200% 이상 증가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현함

2)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변화

■ 2020년 전체 매출은 2019년도와 비교할 때 일부 상승하거나 큰 변화가 없으나, 업종별 비교에서는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매출 하락이 확인됨

- 2019~2020년까지 분기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2020년 매출은 4사분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상승함
  - 2019년도 상반기의 경우 전체 매출액 평균이 4천만 원이 채 되지 않으나, 2020년도 상반기는 모두 평균 매출액이 4천만 원을 상회함
  - 다만 4사분기 평균 매출액의 경우 2019년도와 비교할 때 2020년도 매출액이 약 14% 감소함
-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외식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4사분기 매출은 3개 연도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역시 2사분기를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매출액 하락을 겪었고, 특히 4사분기 하락 폭이 가장 컸음
  - 소매업만이 2019년도와 비교할 때 3사분기까지는 모두 매출액이 상승하였으나, 4사분기에만 소폭 하락함

그림 2 업종별 매출 변화 (단위: 만 원)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https://golmok.seoul.go.kr/main.do 2020년 4월 1일 검색)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6 서울시 매출 변화 (2019~2020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체	398	380	404	519	443	470	448	445
외식업	503	470	507	543	435	453	423	387
한식업	622	584	632	686	550	573	536	497
중식업	585	518	558	585	461	478	468	455
일식업	487	438	440	546	441	470	435	421
양식업	542	500	541	570	418	418	398	378
제과업	633	577	605	702	592	601	588	602
커피-음료	381	367	401	421	328	346	327	279
패스트푸드	499	482	494	454	351	350	336	304
치킨	367	345	350	336	291	313	268	225
분식	322	295	348	336	288	284	264	247
호프-주점	381	372	392	442	346	384	349	284
서비스업	256	246	261	276	239	250	245	238
일반교습학원	375	337	371	502	392	436	422	397
외국어학원	421	362	389	298	288	324	306	282
예술학원	179	169	202	190	128	133	148	144
일반의원	1,498	1,437	1,473	1,710	1,514	1,483	1,582	1,553
치과의원	1,296	1,241	1,260	1,269	1,214	1,248	1,242	1,261
한의원	674	714	709	686	597	668	635	619
스포츠강습	220	202	218	212	151	161	160	149
당구장	75	60	73	94	97	96	77	60
골프연습장	440	457	470	399	433	524	481	398
스포츠클럽	505	516	512	583	407	440	396	316
PC방	790	637	875	900	902	747	537	579
노래방	184	170	189	210	149	135	82	87
미용실	165	156	170	167	148	166	155	143
네일숍	84	107	111	107	62	78	74	60
피부관리실	109	100	105	94	89	94	88	81
세탁소	80	103	65	76	67	91	53	70
소매업	442	427	450	685	598	643	614	635
슈퍼마켓	856	837	878	741	829	815	826	773
편의점	1,533	1,589	1,750	1,604	1,449	1,549	1,613	1,512
의약품	1,250	1,235	1,293	1,779	1,882	2,117	1,890	1,841
미곡판매	280	297	333	691	578	661	637	721
육류판매	641	491	644	1,093	1,222	1,118	1,303	1,155
수산물판매	897	691	719	2,900	2,001	1,852	1,568	2,209
청과상	444	363	459	955	933	1,063	1,189	1,058
반찬가게	260	233	315	965	812	809	815	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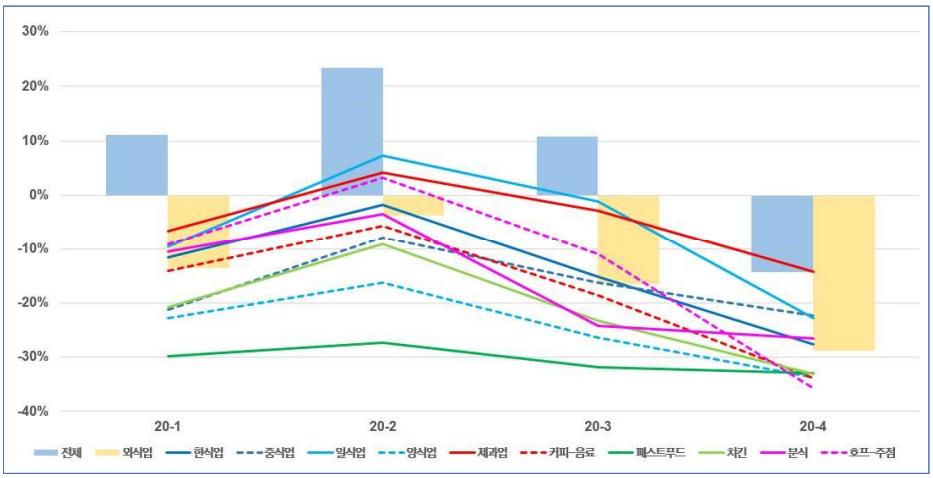
주: 2020년 매출은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하락한 경우 파란색으로, 상승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10% 이상 증감한 경우 옅은 음영으로, 20% 이상 증감한 경우 진한 음영으로 표시. 개별 업종은 100개 업종 중 선정.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외식업종) 대부분 매출 하락을 겪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 하락폭이 가장 낮고 3차 대유행 기간의 하락폭이 가장 큼

- 외식업종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하락하였고 특히 2사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제과업의 경우 하락폭이 가장 작고 패스트푸드의 경우 모든 기간에 30% 내외의 매출 하락을 보임
  - 1사분기에는 모든 업종이 매출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패스트푸드와 치킨, 양식업, 중식업 하락 비율이 높음
  - 2사분기에는 일정 부분 매출액이 회복되었으나 패스트푸드만이 전년도 대비 27%의 하락세를 보였고, 3사분기에는 패스트푸드나 치킨과 분식의 매출 하락이 큰 반면, 일식업과 제과업, 호프-주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음
  - 제과업을 제외한 모든 외식업종이 2020년 4사분기에 전년도 대비 20% 이상 매출이 하락함
-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규 확진 비율이 가장 낮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의 경우 매출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일식업, 제과업, 호프·주점과 같이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매출이 상승한 업종도 확인됨

그림 3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외식업 매출 변화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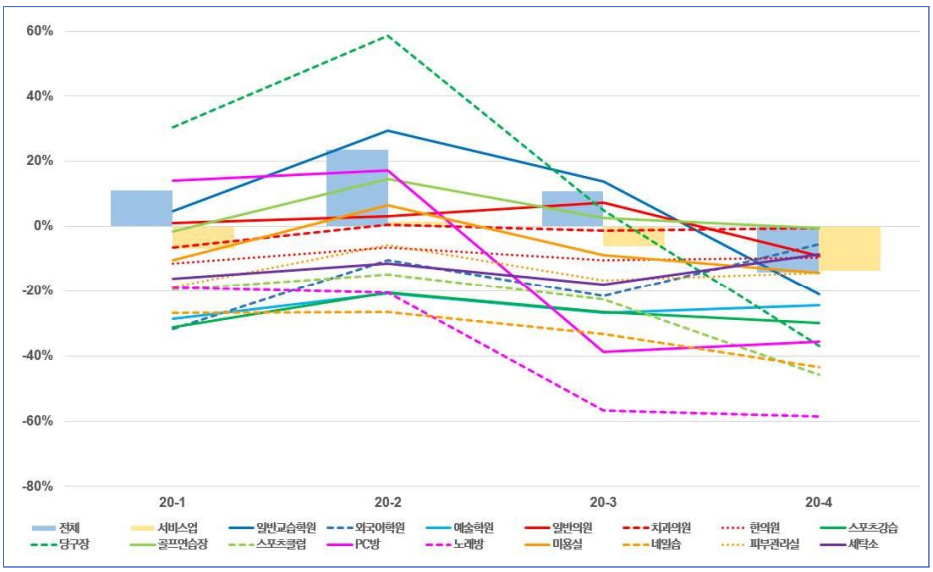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서비스업) 개별업종별 매출 변화가 가장 크며, 일부 개별업종은 전년도 대비 약 50%의 매출 하락을 보임

- 4사분기에 대부분의 업종이 매출 하락을 보인 외식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분기별 매출 하락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매출 하락을 보인 업종은 노래방과 스포츠클럽, PC방으로 4사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50% 정도의 하락세를 보임
  - 학원업의 경우 일반교습학원을 제외한 업종에서 피해가 컸으며, 의원의 경우 전반적인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특히 일반의원의 경우 4사분기를 제외하고 매출이 상승함
  - 실내스포츠업종 중 스포츠 강습은 2020년 전 기간에 걸쳐 큰 매출 하락세를 보인 반면 골프연습장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미용실이나 세탁소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매출 하락폭이 크지 않음
- 분기별로는 학원업의 경우 1사분기 매출 하락이 가장 컸고, 실내스포츠업종은 3사분기 이후 매출 하락세가 두드러짐
  - 노래방과 PC방, 스포츠클럽과 같이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업종의 경우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3사분기 이후 매출이 급감함
  - 특히 노래방의 경우 서울시의 개별적인 집합금지가 이루어진 2사분기와 비교할 때 3사분기 이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함

그림 4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서비스업 매출 변화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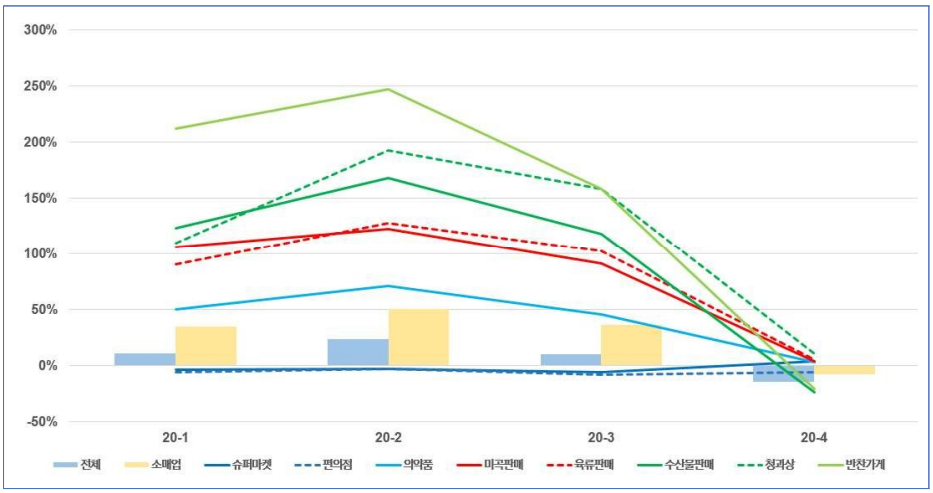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소매업) 3개 업종 중 소매업의 경우 가장 적은 매출 하락세를 보였으며, 전년도 대비 매출이 상승한 업종이 많음

- 의약품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진 1·2사분기 매출 상승폭이 큰 반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식자재 판매업의 경우 3사분기까지 매출 상승이 매우 컸고, 특히 반찬가게의 경우 이전년도 대비 200% 이상의 성장을 보임
- 개별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4사분기에 가장 낮았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의 경우 육류판매와 수산물판매, 청과상의 매출 상승이 큼

그림 5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소매업 매출 변화 (2020년)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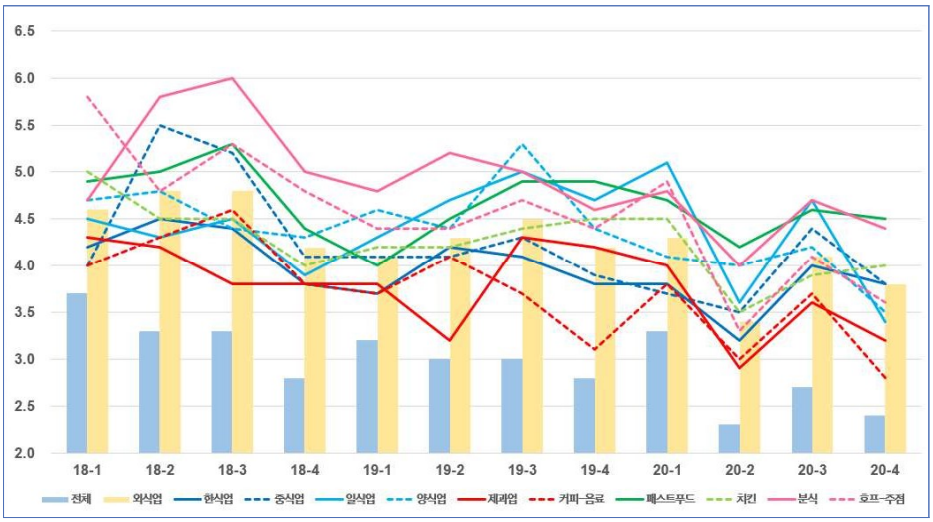
2) 코로나19에 따른 창·폐업 변화

- 폐업률은 2018년에 비하여 201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됐으며, 2020년의 경우 1사분기에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그 이후 이전 분기와 비교할 때 낮은 폐업률을 보임
  - 2020년 1사분기 폐업률은 2019년 전 분기와 비교할 때 대체로 높았으며, 2사분기에는 매우 낮은 폐업률을 보이고, 3사분기에 올랐다가 4사분기에 다소 떨어짐
- 개업률은 2018년과 2019년에 큰 변화가 없으나, 2020년에는 전 분기 모두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외식업) 전체 폐업률과 비교할 때 전 기간에 걸쳐 외식업 폐업률은 매우 높으며, 2020년 2사분기에는 매우 낮은 폐업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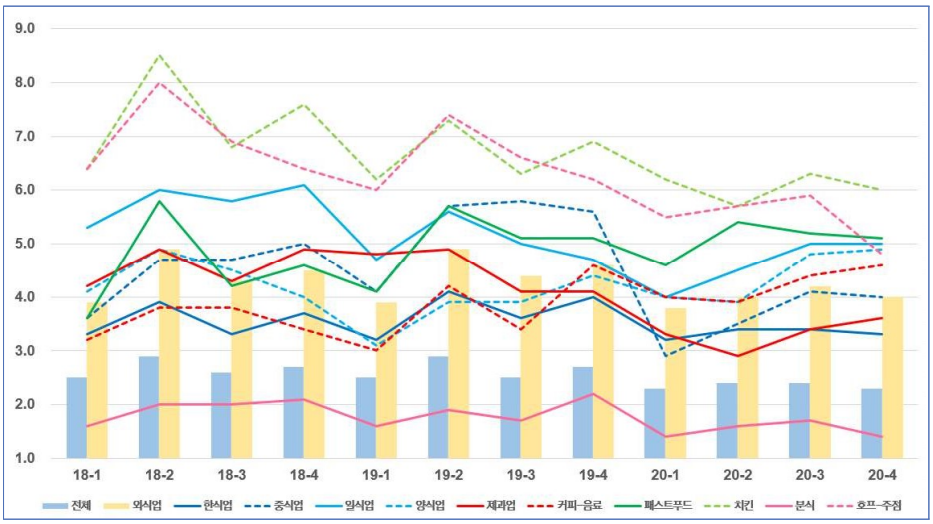
- 개별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1사분기에 높았던 폐업률이 2사분기 모두 낮아졌으며, 3사분기에 다소 상승했다 4사분기에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개별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 분식, 일식업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과업이나 커피·음료, 한식업은 낮음

그림 6 외식업 폐업률 변화 (2018~ 2020년)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7 외식업 개업률 변화 (2018~ 2020년)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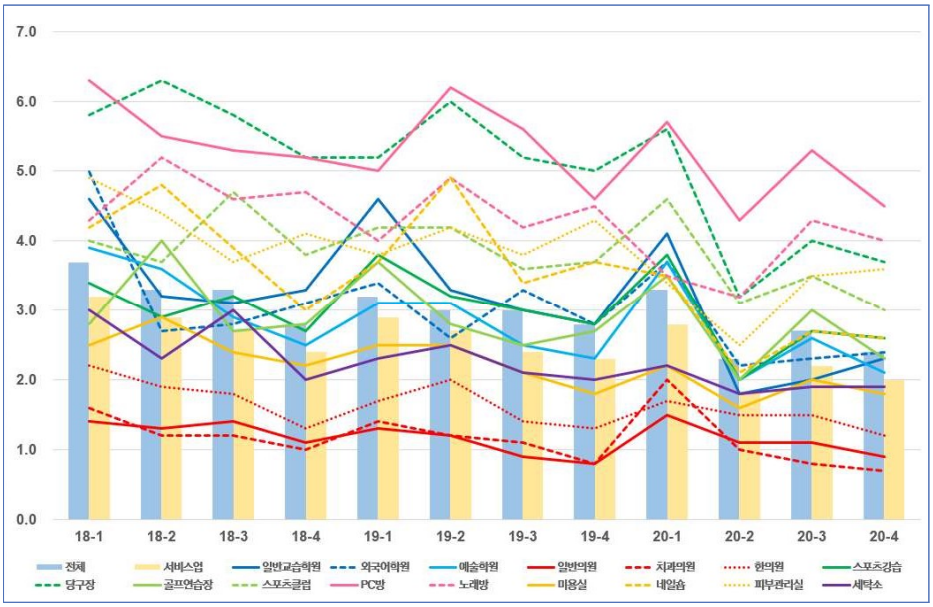
- 대부분의 개별 업종이 외식업 전체 폐업률과 비슷한 변화를 보이나, 분식과 패스트푸드, 일식업, 패스트푸드는 외식업 전체 폐업률 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개업률 역시 외식업 개업률이 전체 개업률의 2배를 상회하며, 2020년 2사분기 폐업률이 크게 하락한 것과 달리 개업률 변화는 크지 않음
- 업종별 개업률은 2020년 1사분기 약간 떨어졌다가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폐업률을 보였던 제과업이나 한식업의 경우 개업률 역시 낮은 수치를 보임
- 치킨과 호프·주점의 경우 외식업 전체 개업률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며, 2018년 1사분기부터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서비스업) 서비스업 폐업률은 전체 폐업률보다 낮으며, 2020년 2사분기 급감하였다 이후 소폭 상승한 반면, 개업률의 경우 2020년 전 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 외식업과 달리 서비스업 폐업률은 전체 폐업률 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며, 2020년 1사분기 높은 값을 보이다 2사분기 급락함
- 개별 업종 대부분이 2020년 2사분기에 이전 기간 대비 매우 낮은 폐업률을 보이며, 이후 3사분기 일부 상승했다 4사분기에 다시 하락함
- 업종별로는 PC방과 당구장, 노래방 폐업률이 매우 높으며, 병의원이나 미용실 폐업률은 낮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그림 8 서비스업 폐업률 변화 (2018~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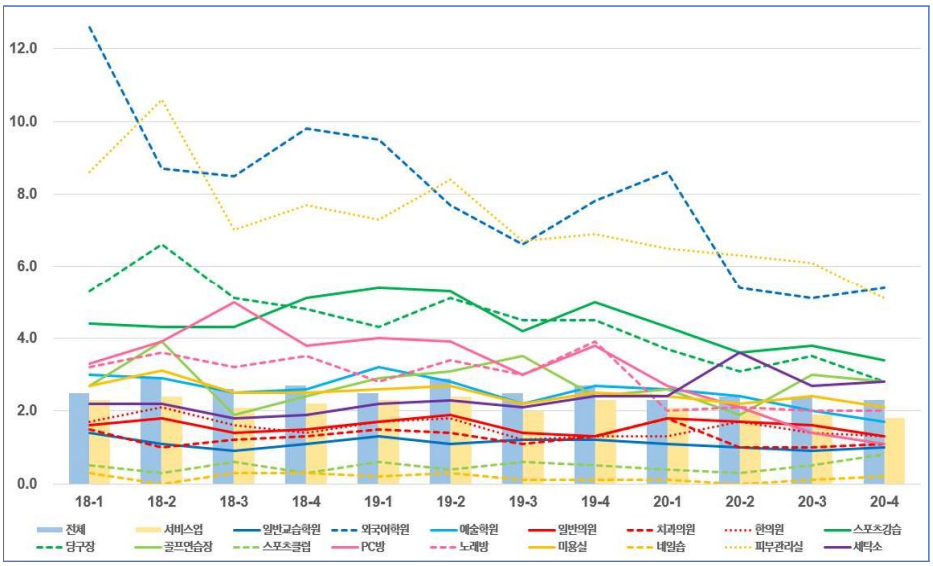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병의원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폐업률에 큰 변화가 없으나 2020년 1사분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다시 감소함

• 서비스업 개업률의 경우 전체 개업률의 약 50% 정도의 수치를 보이며, 대부분의 업종이 2018년 상반기부터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2020년의 경우 일부 업종 개업률이 1사분기에 다소 올랐다가 2사분기 감소한 다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업종별로는 외국어학원과 피부관리실 개업률이 상당히 높으나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스포츠클럽과 네일숍은 낮은 개업률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4사분기 오히려 소폭 상승함

그림 9 서비스업 개업률 변화 (2018~ 2020년)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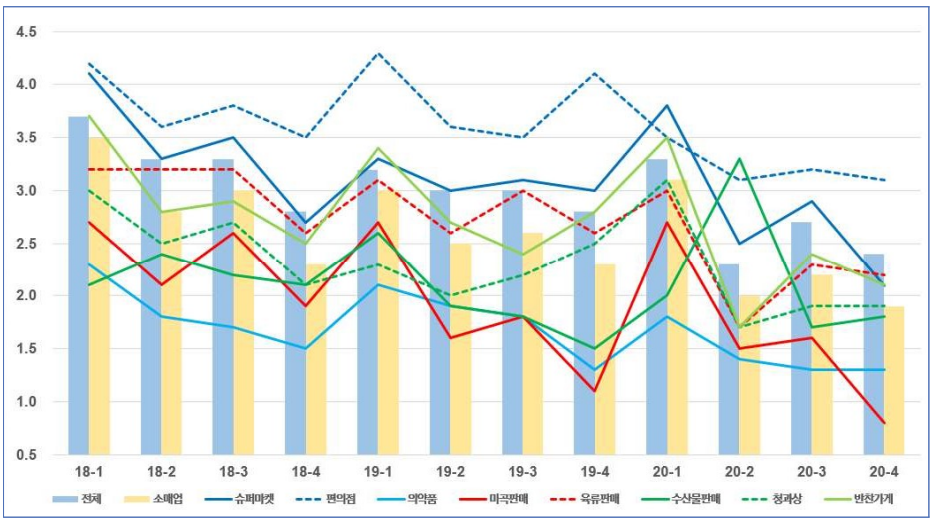
■ (소매업) 소매업 폐업률은 전체와 비교할 때 다소 낮으며, 2020년 1사분기 높은 수치를 보이다 2사분기 급격히 낮아진 다음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2020년 1사분기 소매업 폐업률은 매우 높았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4사분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업종별로는 편의점 폐업률이 가장 높고 미곡판매와 의약품 폐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의약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미곡 판매와 슈퍼마켓의 경우 2020년 1사분기 폐업률이 급등하였다가 2사분기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산물판매만 전반적으로 폐업률이 하락한 2020년 2사분기에 급

등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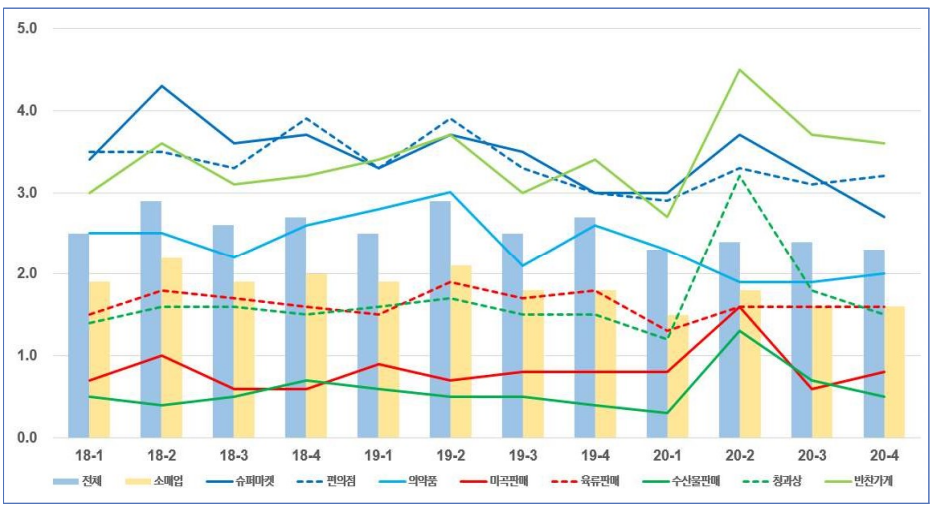
- 소매업 개업률은 2020년 전체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으나, 2사분기에만 다소 상승함
  - 업종별로는 반찬가게와 슈퍼마켓, 편의점 개업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 미곡판매와 수산물판매는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보임
  - 2020년 2사분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준 업종은 청과상이며, 편의점의 경우 2020년 전 기간 동안 개업률의 변화가 크지 않음

그림 10 소매업 폐업률 변화 (2018~ 2020년)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1 소매업 개업률 변화 (2018~ 2020년)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7 서울시 개업률 변화 (단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체	2.5	2.9	2.6	2.7	2.5	2.9	2.5	2.7	2.3	2.4	2.4	2.3
외식업	3.9	4.9	4.3	4.5	3.9	4.9	4.4	4.6	3.8	4.0	4.2	4.0
한식업	3.3	3.9	3.3	3.7	3.2	4.1	3.6	4.0	3.2	3.4	3.4	3.3
중식업	3.6	4.7	4.7	5.0	4.1	5.7	5.8	5.6	2.9	3.5	4.1	4.0
일식업	5.3	6.0	5.8	6.1	4.7	5.6	5.0	4.7	4.0	4.5	5.0	5.0
양식업	4.1	4.9	4.5	4.0	3.1	3.9	3.9	4.4	4.0	3.9	4.8	4.9
제과업	4.2	4.9	4.3	4.9	4.8	4.9	4.1	4.1	3.3	2.9	3.4	3.6
커피-음료	3.2	3.8	3.8	3.4	3.0	4.2	3.4	4.6	4.0	3.9	4.4	4.6
패스트푸드	3.6	5.8	4.2	4.6	4.1	5.7	5.1	5.1	4.6	5.4	5.2	5.1
치킨	6.4	8.5	6.8	7.6	6.2	7.3	6.3	6.9	6.2	5.7	6.3	6.0
분식	1.6	2.0	2.0	2.1	1.6	1.9	1.7	2.2	1.4	1.6	1.7	1.4
호프-주점	6.4	8.0	6.9	6.4	6.0	7.4	6.6	6.2	5.5	5.7	5.9	4.8
서비스업	2.3	2.4	2.1	2.2	2.3	2.4	2.0	2.3	2.1	2.0	1.9	1.8
일반교습학원	1.4	1.1	0.9	1.1	1.3	1.1	1.2	1.2	1.1	1.0	0.9	1.0
외국어학원	12.6	8.7	8.5	9.8	9.5	7.7	6.6	7.8	8.6	5.4	5.1	5.4
예술학원	3.0	2.9	2.5	2.6	3.2	2.8	2.2	2.7	2.6	2.4	2.0	1.7
일반의원	1.6	1.8	1.4	1.5	1.7	1.9	1.4	1.3	1.8	1.7	1.6	1.3
치과의원	1.5	1.0	1.2	1.3	1.5	1.4	1.1	1.3	1.8	1.0	1.0	1.1
한의원	1.7	2.1	1.6	1.4	1.7	1.8	1.2	1.3	1.3	1.7	1.4	1.3
스포츠강습	4.4	4.3	4.3	5.1	5.4	5.3	4.2	5.0	4.3	3.6	3.8	3.4
당구장	5.3	6.6	5.1	4.8	4.3	5.1	4.5	4.5	3.7	3.1	3.5	2.8
골프연습장	2.7	3.9	1.9	2.4	2.9	3.1	3.5	2.4	2.6	1.9	3.0	2.8
스포츠클럽	0.5	0.3	0.6	0.3	0.6	0.4	0.6	0.5	0.4	0.3	0.5	0.8
PC방	3.3	3.9	5.0	3.8	4.0	3.9	3.0	3.8	2.7	2.1	1.4	1.1
노래방	3.2	3.6	3.2	3.5	2.8	3.4	3.0	3.9	2.0	2.1	2.0	2.0
미용실	2.7	3.1	2.5	2.5	2.6	2.7	2.2	2.5	2.4	2.2	2.4	2.1
네일숍	0.3	0.0	0.3	0.3	0.2	0.3	0.1	0.1	0.1	0.0	0.1	0.2
피부관리실	8.6	10.6	7.0	7.7	7.3	8.4	6.7	6.9	6.5	6.3	6.1	5.1
세탁소	2.2	2.2	1.8	1.9	2.2	2.3	2.1	2.4	2.4	3.6	2.7	2.8
소매업	1.9	2.2	1.9	2.0	1.9	2.1	1.8	1.8	1.5	1.8	1.6	1.6
슈퍼마켓	3.4	4.3	3.6	3.7	3.3	3.7	3.5	3.0	3.0	3.7	3.2	2.7
편의점	3.5	3.5	3.3	3.9	3.3	3.9	3.3	3.0	2.9	3.3	3.1	3.2
의약품	2.5	2.5	2.2	2.6	2.8	3.0	2.1	2.6	2.3	1.9	1.9	2.0
미곡판매	0.7	1.0	0.6	0.6	0.9	0.7	0.8	0.8	0.8	1.6	0.6	0.8
육류판매	1.5	1.8	1.7	1.6	1.5	1.9	1.7	1.8	1.3	1.6	1.6	1.6
수산물판매	0.5	0.4	0.5	0.7	0.6	0.5	0.5	0.4	0.3	1.3	0.7	0.5
청과상	1.4	1.6	1.6	1.5	1.6	1.7	1.5	1.5	1.2	3.2	1.8	1.5
반찬가게	3.0	3.6	3.1	3.2	3.4	3.7	3.0	3.4	2.7	4.5	3.7	3.6

주: 2020년 개업률은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하락한 경우 파란색으로, 상승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10% 이상 증감한 경우 옅은 음영으로, 20% 이상 증감한 경우 진한 음영으로 표시. 개별 업종은 100개 업종 중 선정

출처: 저자 작성

표 8 서울시 폐업률 변화 (단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 체	3.7	3.3	3.3	2.8	3.2	3.0	3.0	2.8	3.3	2.3	2.7	2.4
외식업	4.6	4.8	4.8	4.2	4.1	4.3	4.5	4.2	4.3	3.4	4.1	3.8
한식업	4.2	4.5	4.4	3.8	3.7	4.2	4.1	3.8	3.8	3.2	4.0	3.8
중식업	4.0	5.5	5.2	4.1	4.1	4.1	4.3	3.9	3.7	3.5	4.4	3.8
일식업	4.5	4.3	4.5	3.9	4.3	4.7	5.0	4.7	5.1	3.6	4.7	3.4
양식업	4.7	4.8	4.4	4.3	4.6	4.4	5.3	4.4	4.1	4.0	4.2	3.5
제과업	4.3	4.2	3.8	3.8	3.8	3.2	4.3	4.2	4.0	2.9	3.6	3.2
커피-음료	4.0	4.3	4.6	3.8	3.7	4.1	3.7	3.1	3.8	3.0	3.7	2.8
패스트푸드	4.9	5.0	5.3	4.4	4.0	4.5	4.9	4.9	4.7	4.2	4.6	4.5
치킨	5.0	4.5	4.5	4.0	4.2	4.2	4.4	4.5	4.5	3.5	3.9	4.0
분식	4.7	5.8	6.0	5.0	4.8	5.2	5.0	4.6	4.8	4.0	4.7	4.4
호프-주점	5.8	4.8	5.3	4.8	4.4	4.4	4.7	4.4	4.9	3.3	4.1	3.6
서비스업	3.2	2.9	2.7	2.4	2.9	2.7	2.4	2.3	2.8	1.8	2.2	2.0
일반교습학원	4.6	3.2	3.1	3.3	4.6	3.3	3.0	2.8	4.1	1.8	2.0	2.3
외국어학원	5.0	2.7	2.8	3.1	3.4	2.6	3.3	2.8	3.7	2.2	2.3	2.4
예술학원	3.9	3.6	2.9	2.5	3.1	3.1	2.5	2.3	3.7	2.0	2.6	2.1
일반의원	1.4	1.3	1.4	1.1	1.3	1.2	0.9	0.8	1.5	1.1	1.1	0.9
치과의원	1.6	1.2	1.2	1.0	1.4	1.2	1.1	0.8	2.0	1.0	0.8	0.7
한의원	2.2	1.9	1.8	1.3	1.7	2.0	1.4	1.3	1.7	1.5	1.5	1.2
스포츠강습	3.4	2.9	3.2	2.7	3.8	3.2	3.0	2.8	3.8	2.0	2.7	2.6
당구장	5.8	6.3	5.8	5.2	5.2	6.0	5.2	5.0	5.6	3.2	4.0	3.7
골프연습장	2.8	4.0	2.7	2.8	3.7	2.8	2.5	2.7	3.5	2.0	3.0	2.3
스포츠클럽	4.0	3.7	4.7	3.8	4.2	4.2	3.6	3.7	4.6	3.1	3.5	3.0
PC방	6.3	5.5	5.3	5.2	5.0	6.2	5.6	4.6	5.7	4.3	5.3	4.5
노래방	4.3	5.2	4.6	4.7	4.0	4.9	4.2	4.5	3.5	3.2	4.3	4.0
미용실	2.5	2.9	2.4	2.2	2.5	2.5	2.1	1.8	2.2	1.6	2.0	1.8
네일숍	4.2	4.8	3.9	3.0	3.7	4.9	3.4	3.7	3.5	2.1	2.7	2.6
피부관리실	4.9	4.4	3.7	4.1	3.8	4.2	3.8	4.3	3.4	2.5	3.5	3.6
세탁소	3.0	2.3	3.0	2.0	2.3	2.5	2.1	2.0	2.2	1.8	1.9	1.9
소매업	3.5	2.8	3.0	2.3	3.0	2.5	2.6	2.3	3.1	2.0	2.2	1.9
슈퍼마켓	4.1	3.3	3.5	2.7	3.3	3.0	3.1	3.0	3.8	2.5	2.9	2.1
편의점	4.2	3.6	3.8	3.5	4.3	3.6	3.5	4.1	3.5	3.1	3.2	3.1
의약품	2.3	1.8	1.7	1.5	2.1	1.9	1.8	1.3	1.8	1.4	1.3	1.3
미곡판매	2.7	2.1	2.6	1.9	2.7	1.6	1.8	1.1	2.7	1.5	1.6	0.8
육류판매	3.2	3.2	3.2	2.6	3.1	2.6	3.0	2.6	3.0	1.7	2.3	2.2
수산물판매	2.1	2.4	2.2	2.1	2.6	1.9	1.8	1.5	2.0	3.3	1.7	1.8
청과상	3.0	2.5	2.7	2.1	2.3	2.0	2.2	2.5	3.1	1.7	1.9	1.9
반찬가게	3.7	2.8	2.9	2.5	3.4	2.7	2.4	2.8	3.5	1.7	2.4	2.1

주: 2020년 폐업률은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하락한 경우 파란색으로, 상승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10% 이상 증감한 경우 옅은 음영으로, 20% 이상 증감한 경우 진한 음영으로 표시. 개별 업종은 100개 업종 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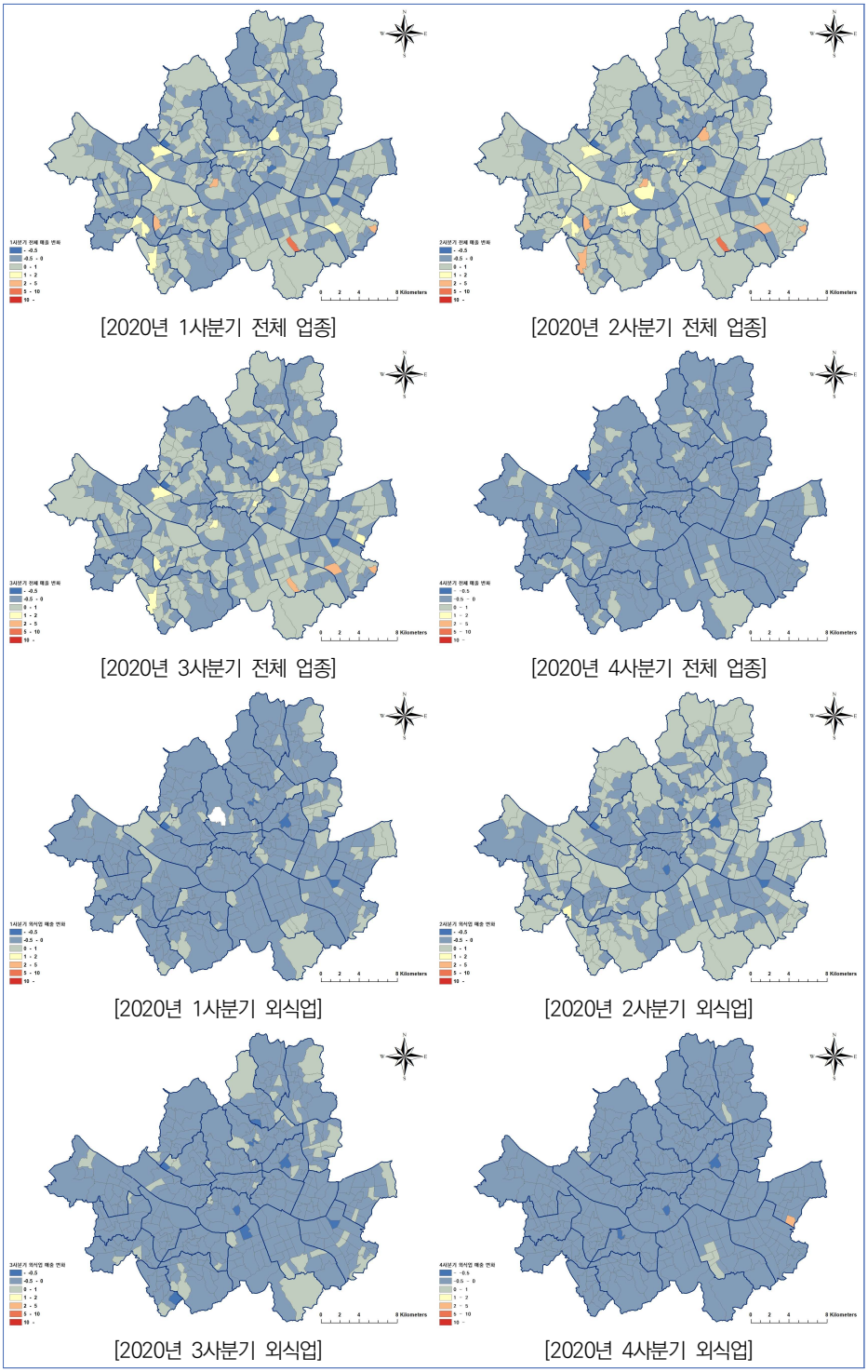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3) 지역별 변화 분석

■ 전년도 동일 분기 매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2020년에는 강북지역에서의 매출 감소가 더 많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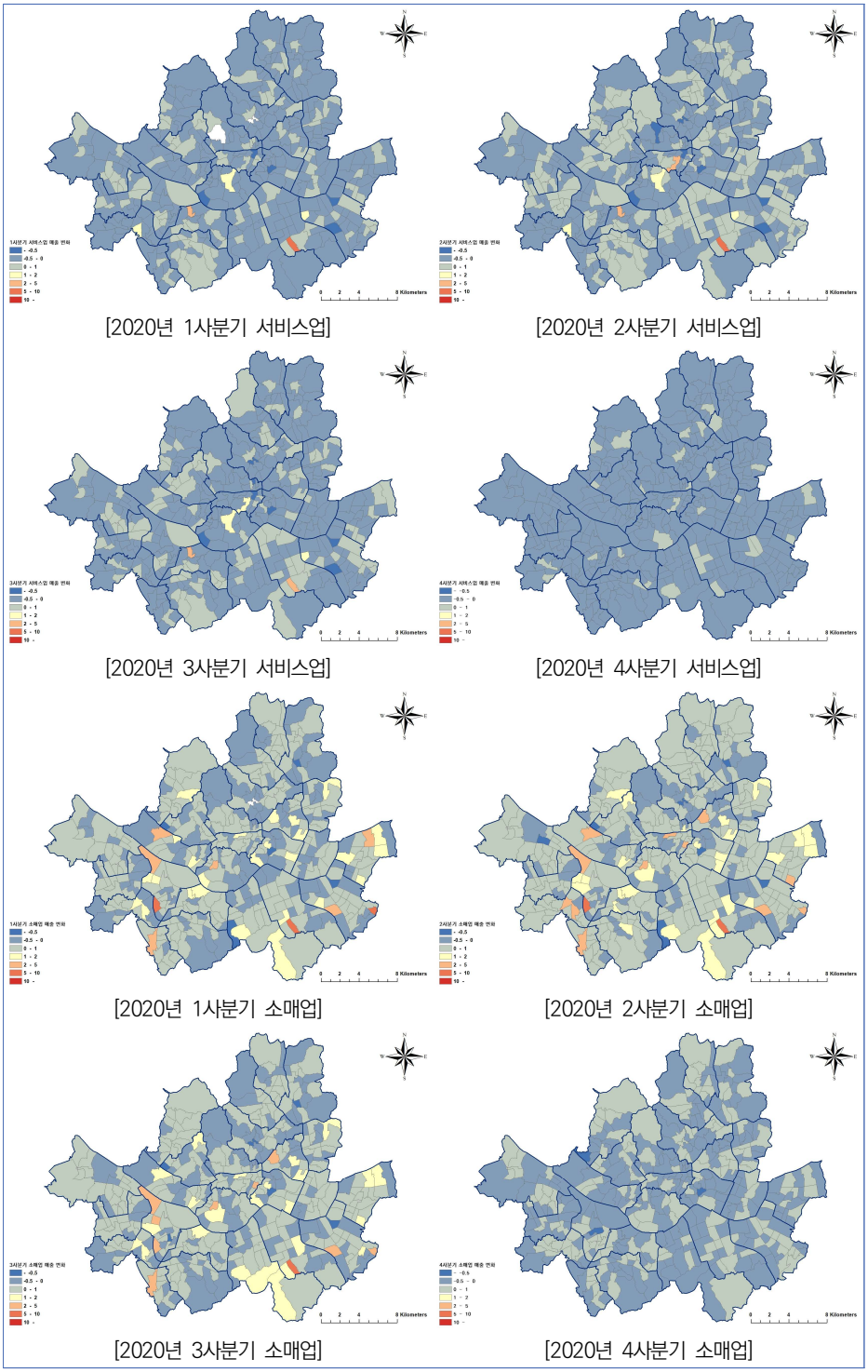
- 매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 동일 분기를 비교한 결과, 2020년 1사분기에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2사분기에는 많은 지역에서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매출이 상승한 다음 3사분기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1사분기와 3사분기의 경우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매출이 상승한 지역이 다수 확인되나, 강북 지역에서는 매출이 하락한 지역의 비율이 더 높음
- 외식업의 경우 전 지역에서의 매출 변화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용산구와 동대문구, 송파구, 서대문구의 경우 전 분기에 걸쳐 급격한 매출 변화가 목격됨
  - 외식업 중 가장 큰 매출 감소를 겪은 패스트푸드의 경우 종로구와 강남구의 매출 감소폭이 가장 작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매출 상승이 확인됨
  - 정부의 방역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 중 하나인 커피·음료의 경우 1사분기에는 용산구나 종로구, 중구, 강남 일대 등 상업·업무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 하락이 확인되나, 3사분기에는 상업·업무 지역의 매출 하락폭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임
- 서비스업의 경우 관악구나 강남 일대에서의 매출 하락 폭이 가장 작았으며, 특히 3사분기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짐
  - 서비스업 중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였던 스포츠클럽의 경우 계속된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출 상승이 목격되었으며, 특히 지역별로 분기별 차이가 크게 확인되지 않음
  -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PC방의 경우 3사분기로 갈수록 강북 중심의 매출 하락이 확인되며, 노래방의 경우 3사분기로 갈수록 급격한 매출 하락세가 전 지역에 고르게 확인됨
- 소매업 매출 변화는 분기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강남 일대나 영등포구 등에서는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매출이 상승한 지역이 다수 목격됨
  - 종로구와 강북 일대에서는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매출이 하락한 지역이 다수이며, 특히 3사분기로 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짐
  - 소매업 중 매출 상승이 확인된 약국의 경우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매출이 상승한 지역이 많았으며, 특히 강남 일대에서 급격한 매출 상승이 확인됨
  - 그러나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 지역과 서대문구 등에서는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매출이 하락한 지역의 비율이 높게 관찰됨

그림 12 지역별 2020년 매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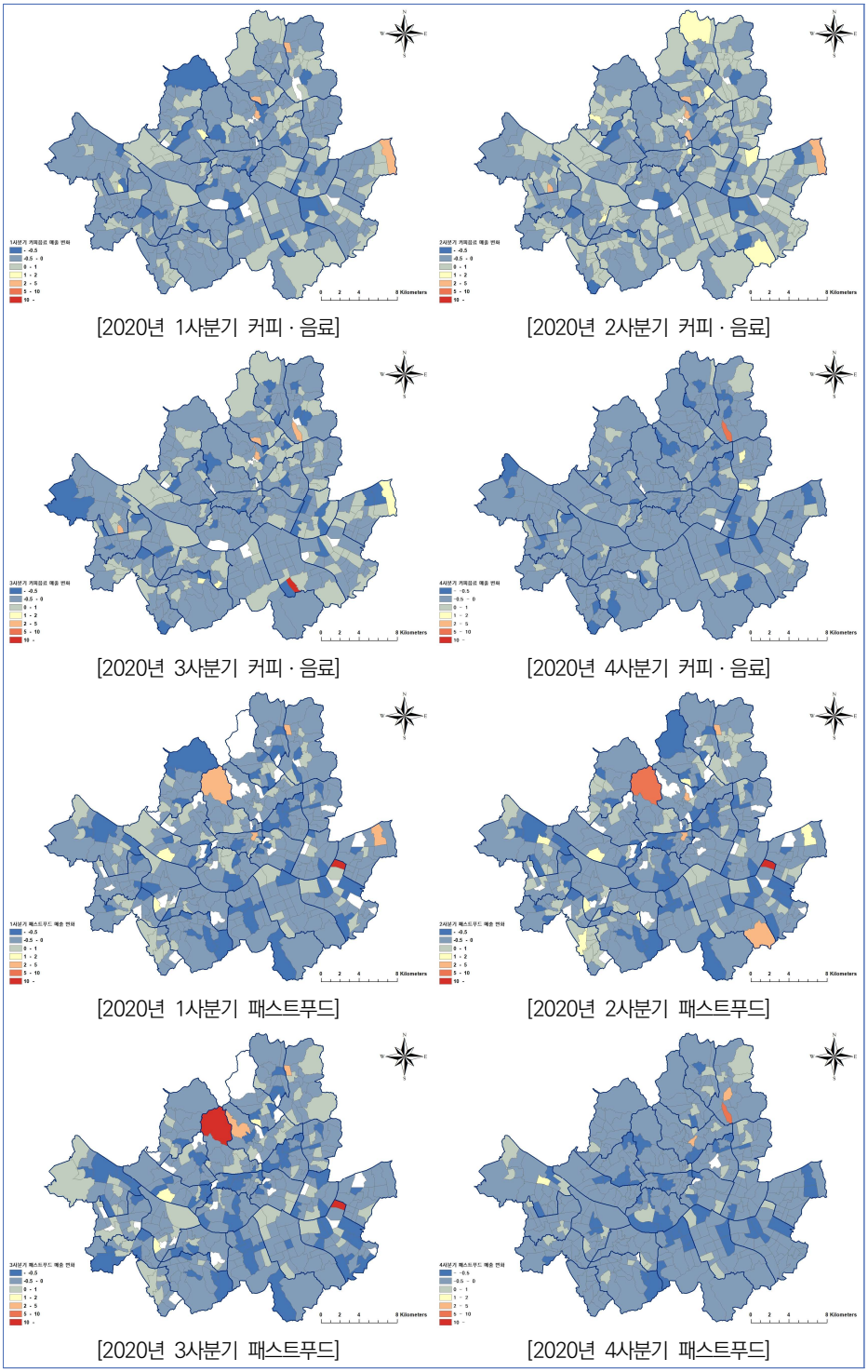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2 **지역별 2020년 매출 변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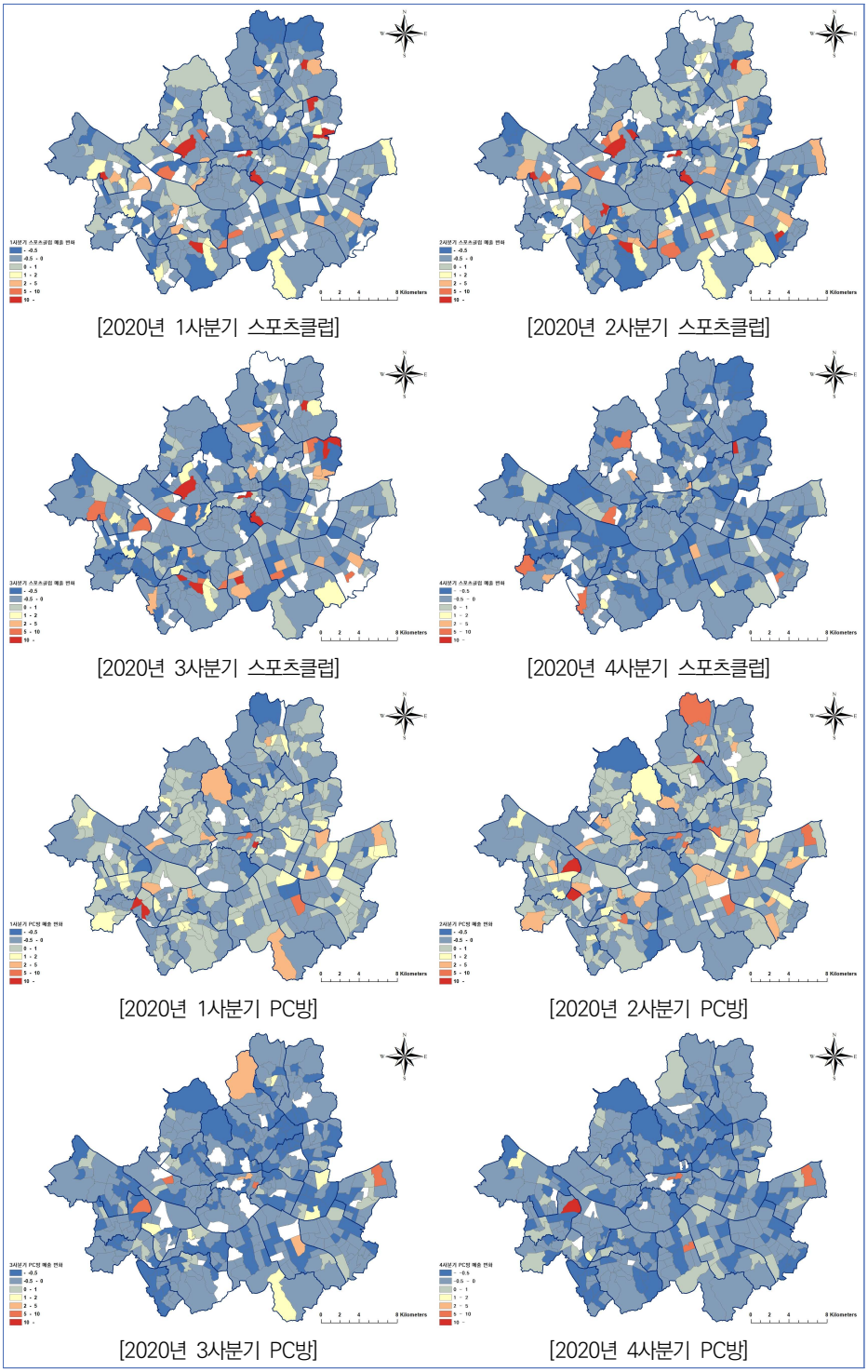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2 **지역별 2020년 매출 변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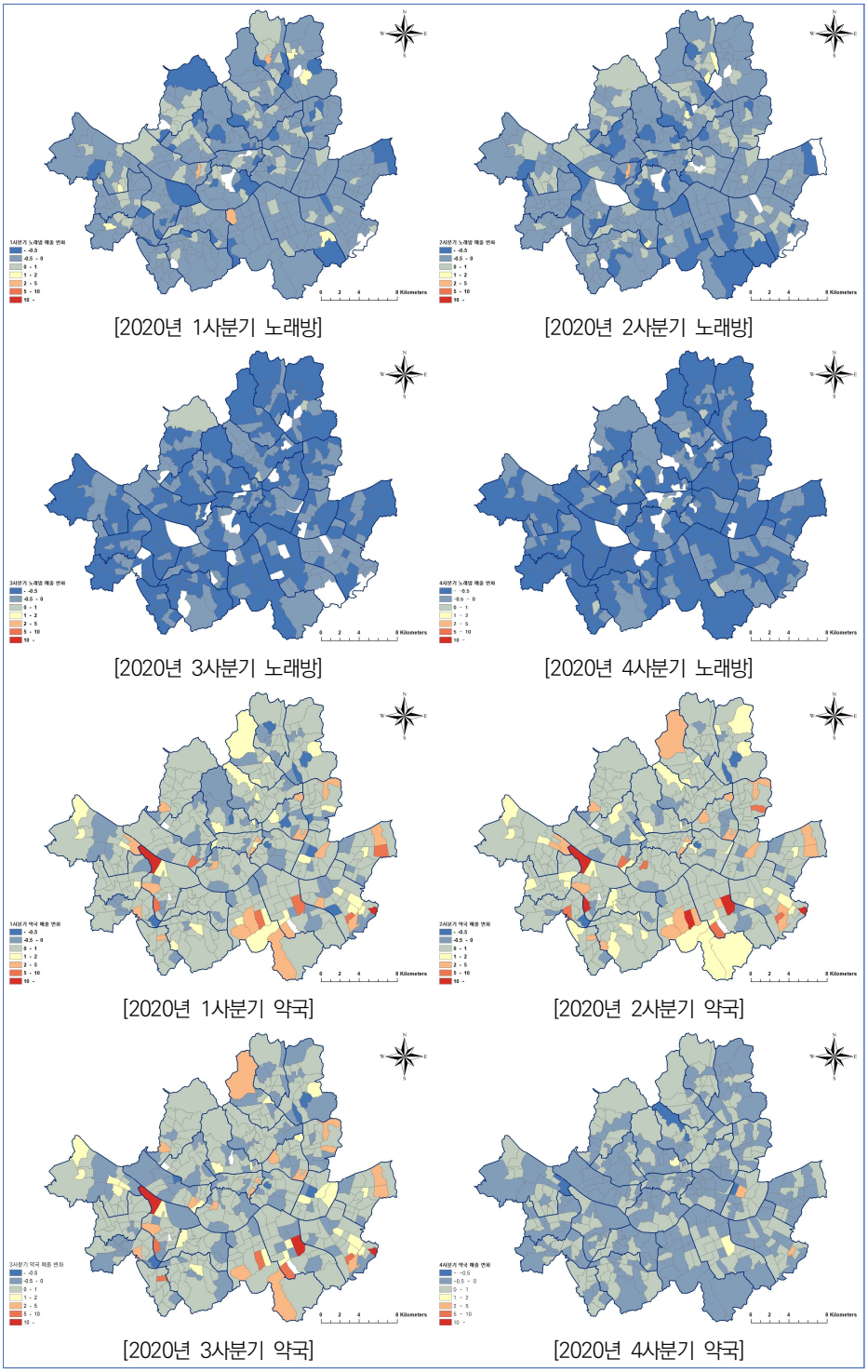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2 **지역별 2020년 매출 변화** (계속)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2 **지역별 2020년 매출 변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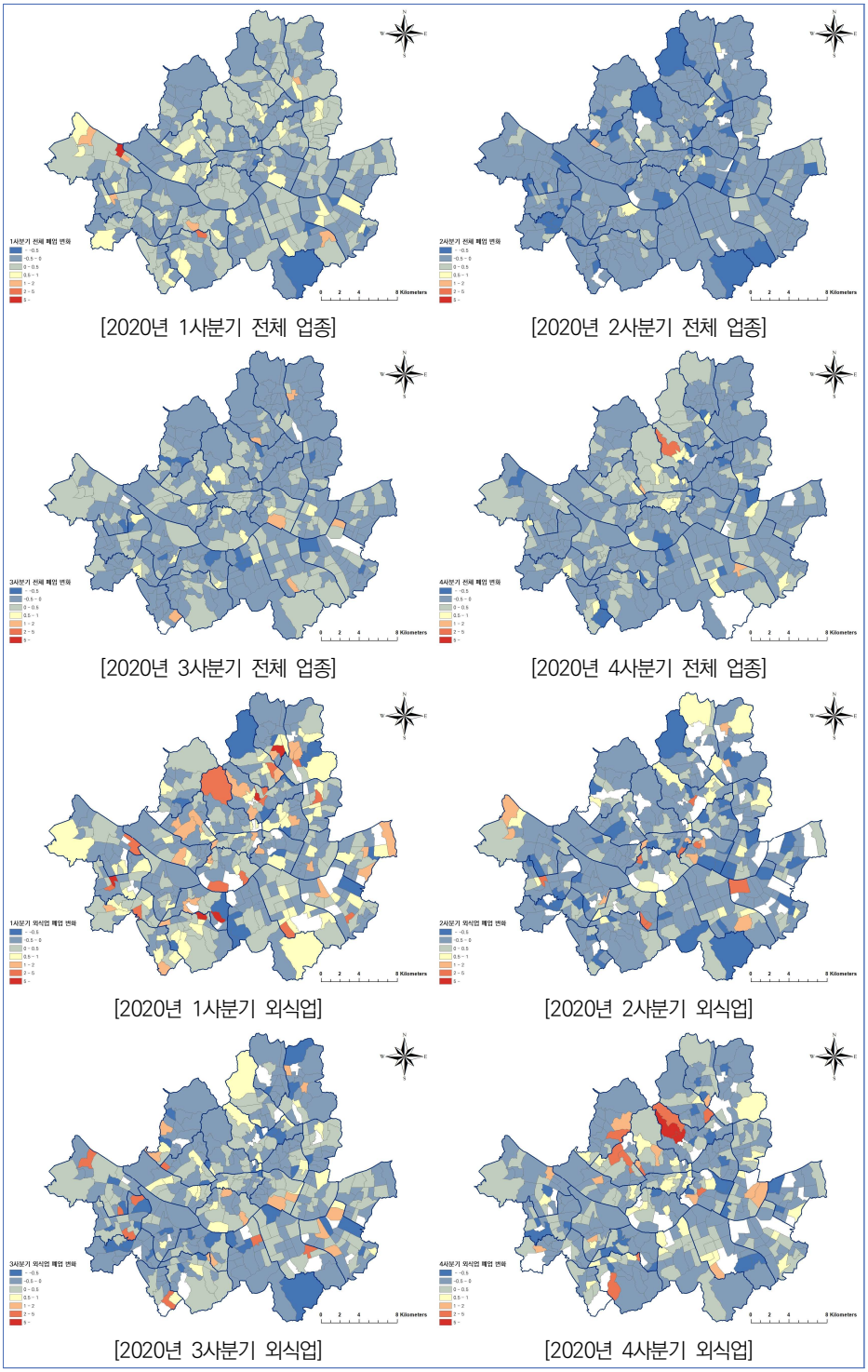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폐업률 역시 전년도 동일 분기와 비교할 때 분기별·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나 특정 지역의 상권 축소 패턴은 확인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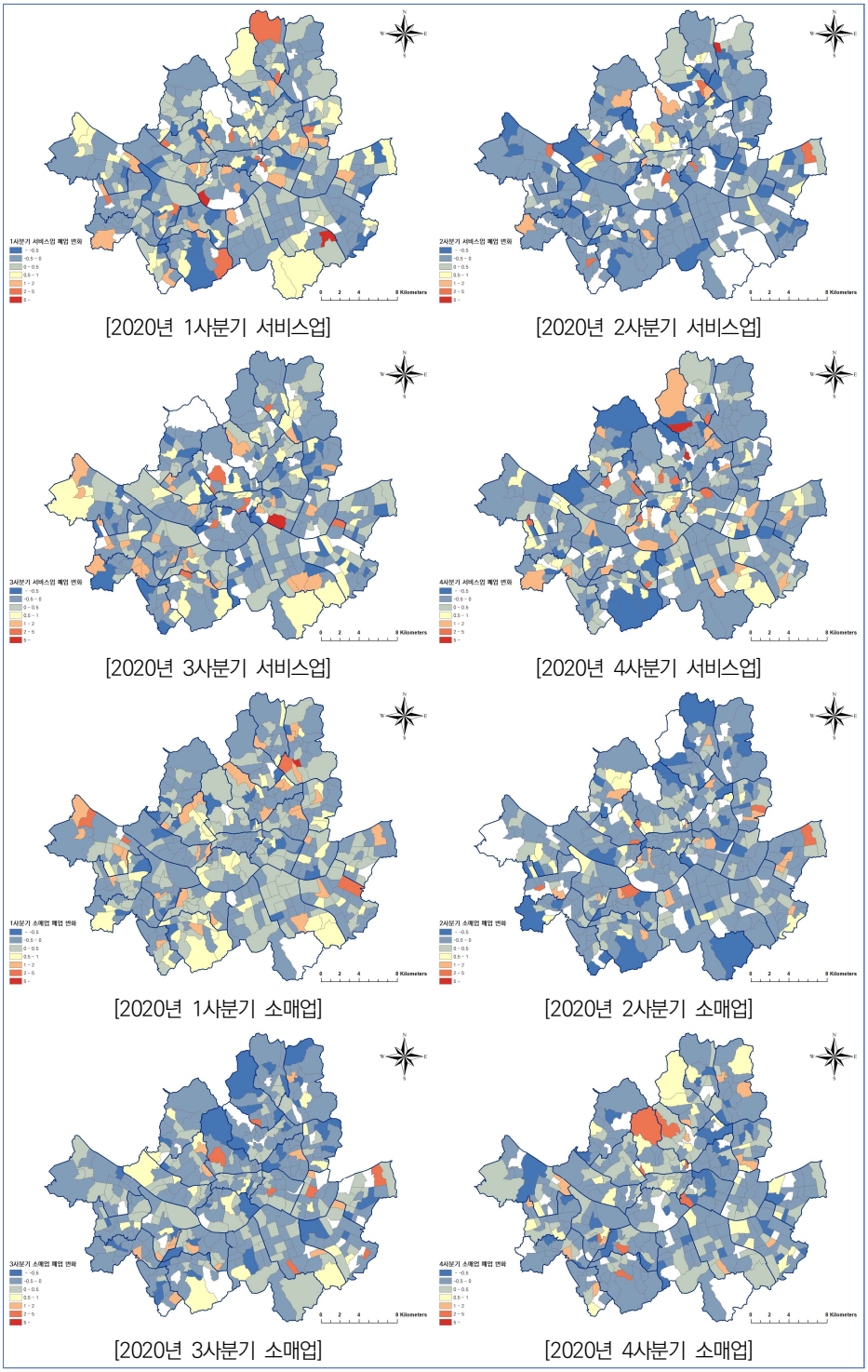
- 전체 업종 폐업률의 경우, 전 지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나, 3사분기에는 강남 일대와 강서구 지역, 4사분기에는 종로구와 강북 일대에서 폐업률 상승이 파악됨
  - 강남구의 경우 1사분기에는 2019년 대비 폐업률 상승이 확인되나, 2사분기부터는 전년도 대비 폐업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종로구와 강북 일대의 경우 2사분기와 3사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폐업률이 감소하였으나, 1사분기와 4사분기에는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됨
- 외식업의 경우 종로구 주변 지역에서 전년도 대비 폐업률 상승이 목격되며, 강남 일대나 영등포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낮아지고 있음
  - 서초구의 경우 2사분기와 3사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폐업률이 많이 감소한 반면,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의 경우 4사분기에 급격한 폐업률 증가가 나타남
  - 종로구의 경우 1사분기에는 높은 폐업률 증가를 보였으나, 2·3사분기에는 폐업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강남 지역 중에서는 송파구에서 가장 높은 폐업률 증가가 조사됨
  -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률을 보였던 패스트푸드의 경우 매출 회복세를 보였던 2사분기에는 오히려 도시 외곽이나 강남과 영등포구 일대에서 높은 폐업률을 기록함
- 서비스업 폐업률 변화는 분기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전년도 동일 분기와 비교할 때 폐업률이 증가한 지역은 분기마다 다르게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초기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1사분기에는 도심 지역과 도봉구, 관악구, 성동구, 동대문구와 같이 대학가나 관광상권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폐업률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2사분기에는 전반적으로 폐업률 하락이 확인됨
  - 3사분기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와 같은 도심 지역에서 큰 폭의 폐업률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4사분기에는 지역 간 폐업률 변화에 큰 차이를 보임
  - 높은 폐업률을 보였던 노래방의 경우 2사분기부터 서초구에서 두드러진 폐업률 증가가 기록됨
- 가장 낮은 폐업률을 보였던 소매업의 경우 1사분기 여러 지역에서 폐업률 증가가 확인된 이후 전반적으로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4사분기에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급격한 증가가 목격됨
  - 매출 상승을 보였던 약국의 경우 4사분기 강남구에서 높은 폐업률 증가가 확인됨

그림 13 지역별 2020년 폐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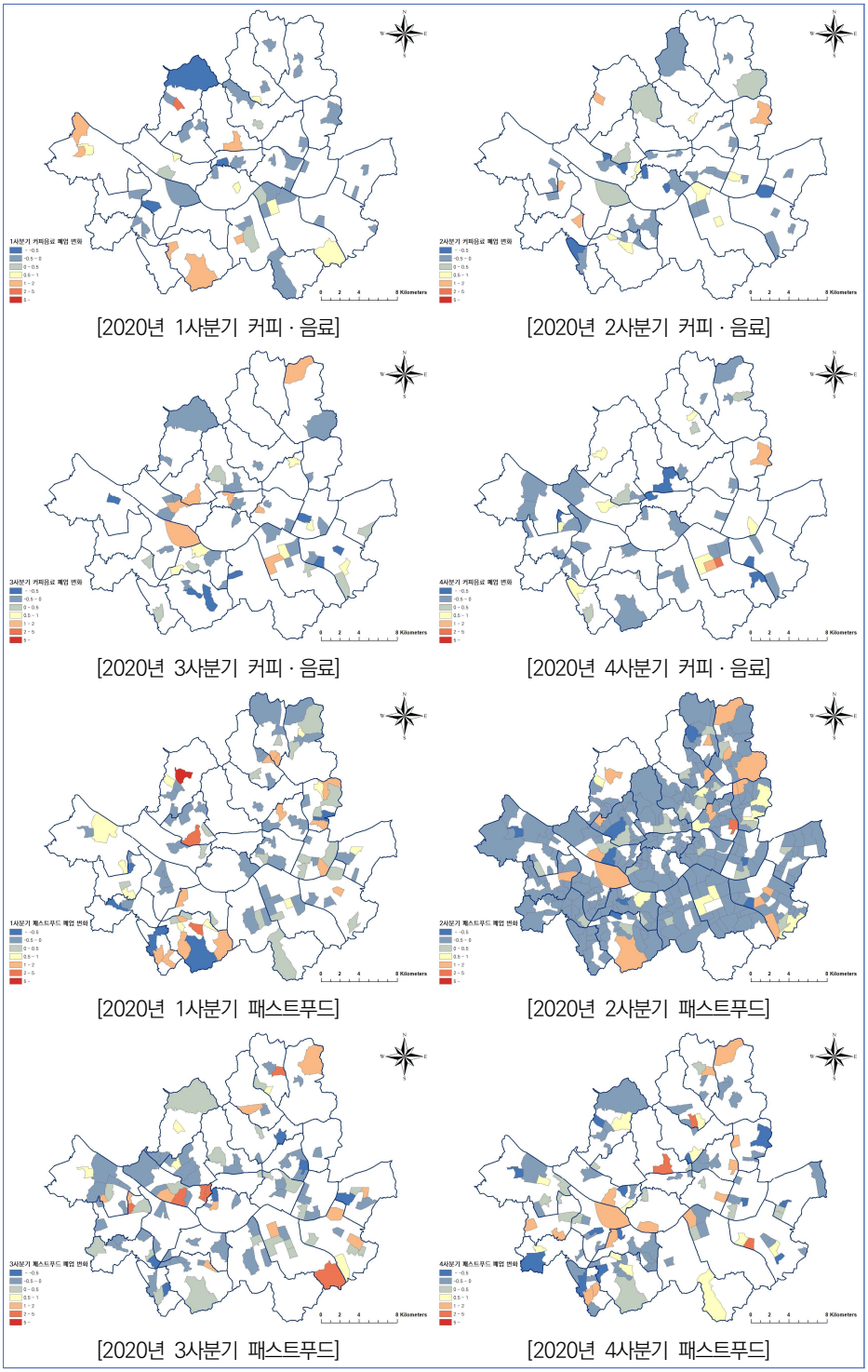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3 **지역별 2020년 폐업률 변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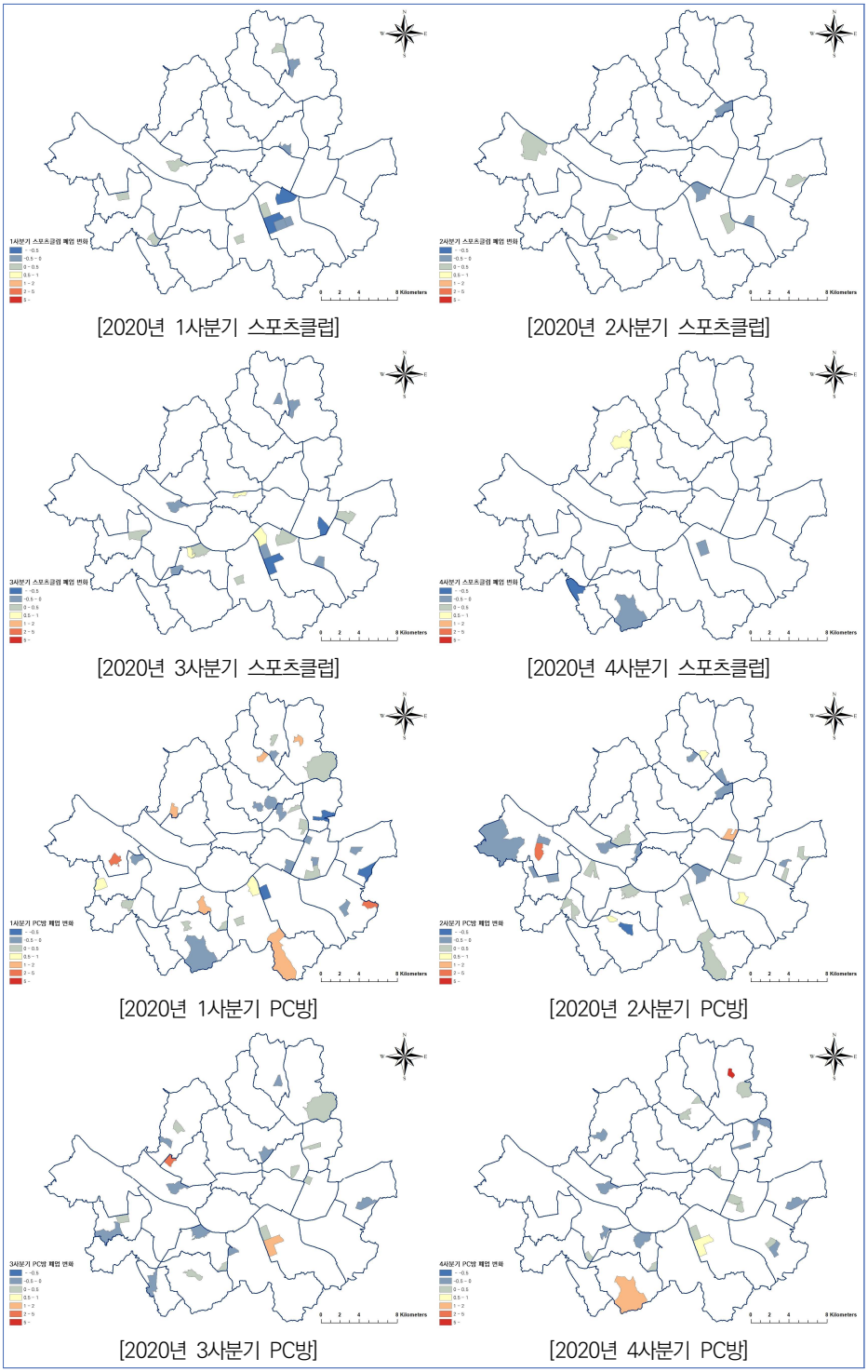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3 **지역별 2020년 폐업률 변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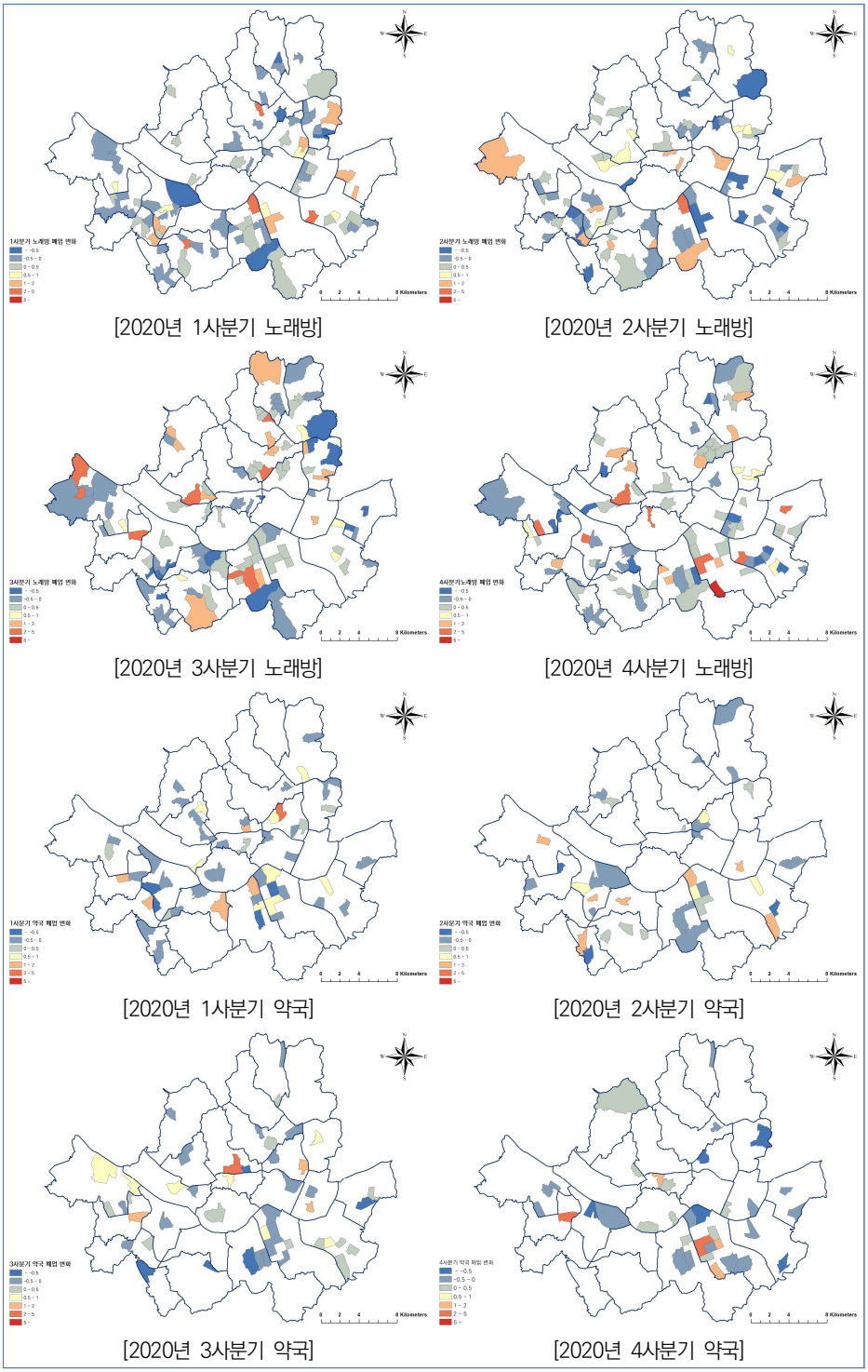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3 **지역별 2020년 폐업률 변화** (계속)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3 **지역별 2020년 폐업률 변화** (계속)



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04 정책제언

1) 분석 결과

■ 2020년 서울시 상권 변화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초기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기간에는 상권이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됨

- 2020년 1사분기의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와 1차 유행이 발생한 시기로, 실제 확진 현황이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에 미친 충격은 컸던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의 경우 극심한 경기 침체로 2018년도 대비 매출 하락과 개업 감소 등을 겪다가 4사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2020년 1사분기에 다시 경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후에는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 기간[5]과 맞물려 상권의 매출이나 개·폐업률의 변화가 보임
  - 2020년 2사분기에는 확진자 감소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매출이 상승했으나 3사분기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남
- 다만 소매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라 외식 등이 제한되면서 식품 중심의 판매업 매출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확진 현황 외에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개별 시설에 대한 강력한 운영 제한이나 외출 자제, 모임 금지 등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상권이 침체하는 패턴이 나타남

- 2020년 4사분기는 3차 대유행이 발행한 시기로, 신규 확진 비율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2사분기 다소 완화되었던 상권 침체가 다시 악화되는 모습이 보임

5) 국내 코로나19 유행 기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함.
- 1차 유행 : 20년 2월 18일(신천지 관련 확진자 발생) ~ 4월 20일(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2차 유행 : 20년 8월 16일(8.15 도심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 9월 28일(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정)
- 3차 유행 : 20년 11월 23일(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확진자 수 전국 400명 이상, 전국 유행단계) ~

- 특히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이미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2019년과 비교해도 매출 감소와 낮은 개업률을 보임
  - 외식업의 경우 3사분기부터 카페 이용 인원 제한이나 PC방 내 취식 제한, 밤 9시 이후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전체 매출이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증가한 경우라도 외식업은 매출 하락을 보임
  - 특히 12월에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급격한 매출 하락을 기록함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3·4분기에는 매출 하락을 보였으며, 특히 몇 차례 집합금지가 적용된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사분기 대비 3사분기에 매출 하락폭이 컸음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이 회복되었으며,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회복세가 빨라진 반면, 몇몇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상권 쇠퇴가 발생함**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권의 변화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강북과 강남 지역의 상권 변화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파악됨
  -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지역의 경우 강북 지역과 비교할 때 매출 하락폭이 작았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진 2사분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남
  -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차이는 3사분기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상업·업무 지역의 경우 그 특성상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의 매출 하락이 타지역보다 작았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역지침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경우 이용 제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종로구나 중구, 강남구와 같은 상업·업무 지역의 경우 외식업 중에서도 식사 업종이 아닌 커피·음료의 매출 하락폭이 컸으나 3사분기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방역지침이 적용됐지만 포장·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또한 외식업 중 가장 큰 매출 하락을 보인 패스트푸드의 경우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매출 감소폭이 작게 나타나 상업 · 업무지역 특성상 직장인들의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소매업의 경우 주거지역 비율이 높은 경우 매출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매출이 상승한 사례가 목격됨

2) 정책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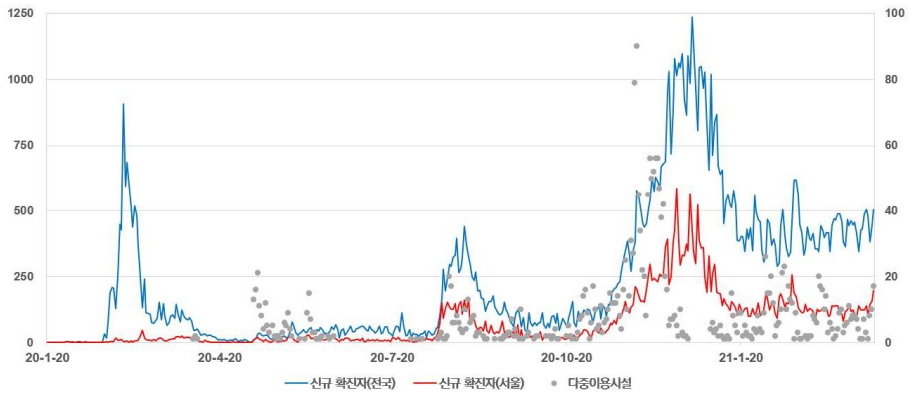
■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충격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은 실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쇠퇴 예방이 요구됨

- 외식업 및 서비스업과 소매업 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매출 증감폭의 큰 차이는 정부의 방역 조차의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2020년 1사분기 외식업의 급격한 매출 하락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외식 빈도 감소, 정부의 영업 제한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였음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실내체육시설이나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PC방과 노래방에서 상대적으로 큰 매출 하락과 폐업률 증가가 확인됨
  - 반면 소매업의 경우 외식 빈도가 감소하면서 미곡이나 육류, 수산물, 청과물과 같은 식자재 판매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공적 마스크 판매 정책은 의약품 판매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됨
  - 서울특별시(2021. 3. 19)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컸던 도심지 골목상권의 매출 하락폭이 가장 큰 반면, 주거지나 생활지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이 파악됨
- 따라서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권 축소나 쇠퇴가 예상되며, 향후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지역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노래방이나 PC방과 같이 정부의 방역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실제 매출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이 밀집한 상권의 경우 급격한 쇠퇴가 예측됨
  -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몇몇 업종의 경우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경우 상권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특히 서울시 내 유명 상권의 경우 외식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단일 업종화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므로(박효숙·이진희 2020), 업종 다양화와 쇠퇴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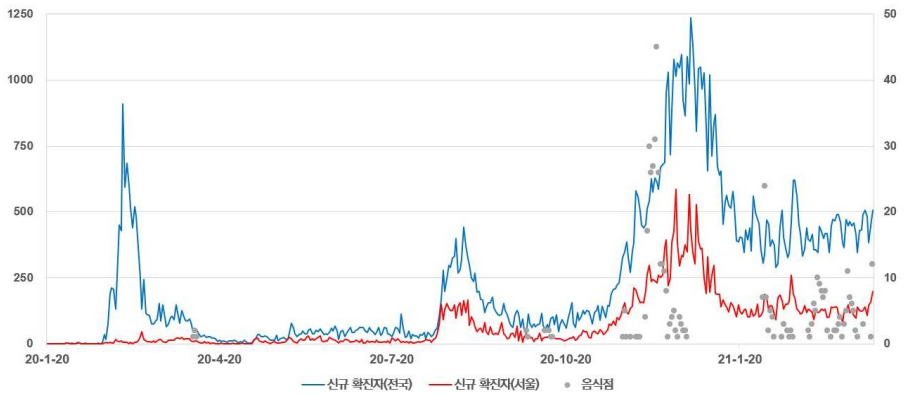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중심의 행정적 규제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과 공학적 설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실제 특정 업종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었으나, 방역 조치 덕에 위험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 서울시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은 2차 유행을 제외하고, 2020년 5월부터 6월 중순, 10월 말부터 12월 중순, 2021년 1월 중순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경우 전반적으로 느슨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기간임
  - 특히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적용되었던 시기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서울시의 경우 확진 사례가 미미하다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이 증가함
- 시설별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의 경우에도 특정 시설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진행된 시기에는 확진자 발생률이 낮았으나, 완화된 시기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
  - 음식점 및 카페의 경우 8월 말부터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신규 확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카페의 경우 2차 유행시기와 함께, 5단계 거리두기 기준 중 1단계와 1.5단계가 적용된 2020년 10월과 11월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음식점에서의 집단감염 역시 1.5단계 기간에 다수 발생함
- 반면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PC방이나 노래방의 경우 실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매우 드물며, 특히 11월 중순 거리두기 1.5단계 기간에만 PC방에서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
  - PC방이나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실제 급격한 매출 하락과 폐업률 증가라는 문제로 이어짐
- 위험시설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코로나19의 무분별한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하나 이러한 방역 정책이 실제 매출 하락 등으로 이어지므로, 피해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길어질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한 공학적 예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되는 시설의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와 같은 개인 방역용품 사용이 일시 중지되는 시설로, 접촉 감염이나 비말·공기 감염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내 공조살균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실내 공간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모델을 기반으로 최적의 공조 설비안을 도출하되, 간단한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적용 가능성을 높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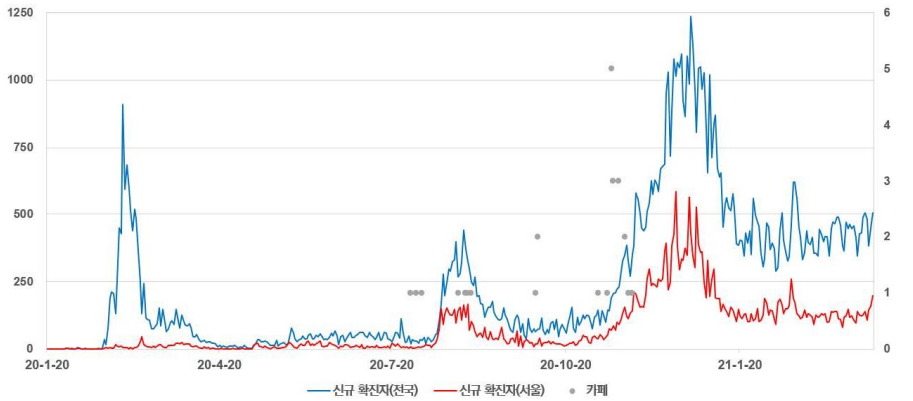
그림 14 시설별 코로나19 확진 현황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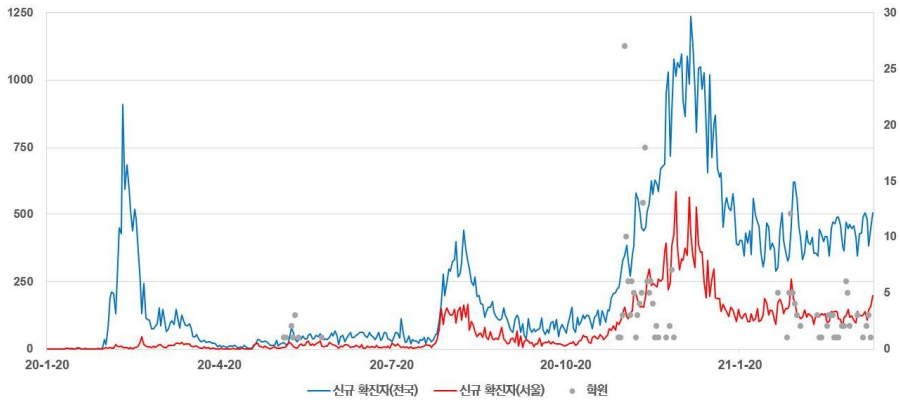
[서울시 음식점 내 집단감염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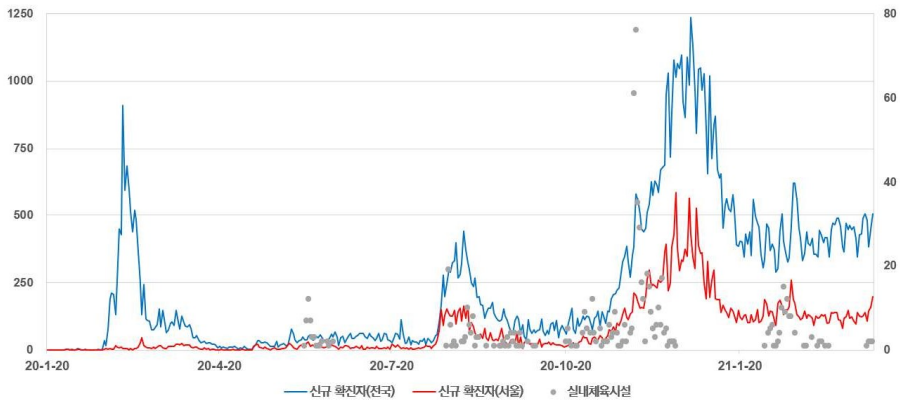
[서울시 카페 내 집단감염 발생 추이]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을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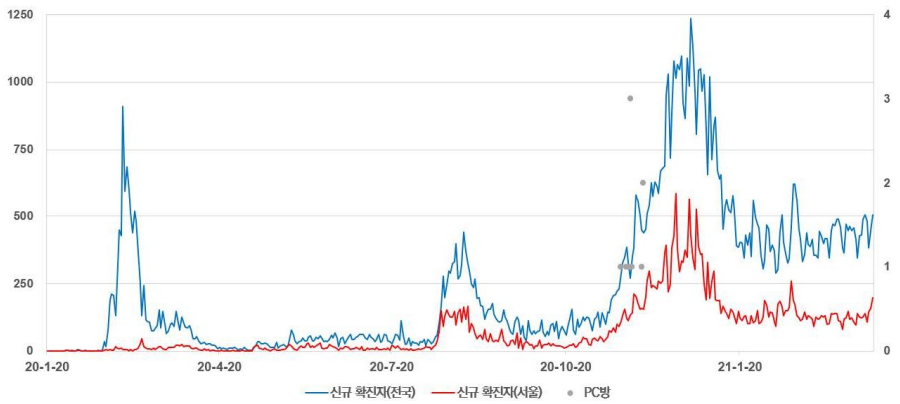
그림 14 **시설별 코로나19 확진 현황** (계속)



[서울시 학원 내 집단감염 발생 추이]



[서울시 실내체육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추이]



[서울시 PC방 내 집단감염 발생 추이]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업종별 차등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이 요구됨

- 코로나19 사태 동안 서울시 내 업종별 매출과 개·폐업률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일부 업종의 경우 오히려 팬데믹 상황에서 매출 상승이 일어난 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매출이 하락하거나 폐업이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음
  - 매출 하락이나 폐업률 증가의 원인 역시 업종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나 재택근무나 원격수업과 같은 이동 제한뿐만 아니라 방역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운영 제한 등 다양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피해에 대한 자료 확인과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산하기관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상권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상권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에 그친 지원은 그 효과가 제한적임
- 일부 업종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안전한 점포 운영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피해 정도에 적합한 지원 정책이 발굴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2021. 3. 19)에 따르면 창업 초기 점포나 점포주 연령이 높을수록 피해 정도가 컸으며,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점포에 대한 일괄적인 현금 지원 이외에도 비대면 운영을 위한 교육이나 기술 지원과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함

참고문헌

경향신문 코로나19 현황. http://news.khan.co.kr/kh_issuenseries/theme_timeline.html?t_code=A103&artSort=old (2021년 4월 2일 검색).

김대중·최요한. 2020. 최근 신종감염병의 경제 영향 예측 및 대응. 미래성장연구, 6권, 1호: 163-174.

문새하.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소비로 인한 소매공간 수요변화와 시사점: 미국과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8일. 보도참고자료.

_____.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1월 1일.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ncov.mohw.go.kr/tcmBoardList.do?brdId=3 (2021년 4월 2일 검색).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https://golmok.seoul.go.kr/main.do (2020년 4월 1일 검색).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일지.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07 (2020년 4월 8일 검색).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 (2020년 2월 1일~4월 1일 검색).

서울특별시. 2021. 코로나19 1년... 서울 골목상권 59% 매출 하락, 41%는 유지 · 상승, 3월 19일. 보도자료.

우영진. 2020.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NABO 포커스 제27호.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유명수·김염수·백수진·권동혁. 2021. 감염재생산지수 개념 및 방역정책에 따른 변화. 주간 건강과 질병, 14권, 6호: 282-289.

이성호·최석환. 2020.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발생의 지역상권 영향 분석: 수원시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30권, 3호: 167-208.

이진희·박정호·이경주. 2020.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이진희.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이슈와 대응 방향 3] 언택트 일상화에 따른 도시공간 이용 패턴 변화와 도시계획 대응. 월간국토 제464호: 15-20.

임태경. 2020.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 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27-46.

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1월 1일. 보도참고자료.

Statista Portal. https://www.statista.com/topics/6139/covid-19-impact-on-the-global-economy/ (2021년 2월 18일 검색).

The Wall Street Journal. 2021. Slow-Vaccinating Asia Is Squandering Its Economic Advantages. March 24, https://www.wsj.com/articles/slow-vaccinating-asia-is-squandering-its-economic-advantages-11616570494 (2021년 3월 28일 검색).

WHO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2021년 2월 18일 검색).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1-12

코로나19 유행 1년간의 서울시 상권 변화와 시사점

연 구 진 이진희
발 행 일 2021년 6월 4일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 페 이 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KRIHS
국토연구원